
韓末 日帝의 鎮海灣要塞 建設과 植民都市 開發의 變形

김 경 남 / 日本 法政大学 大学院

目 次

- I. 서 論
 - II. 한말 러일의 각축전과 일제의 진해만 점령의 배경
 - III. 부산포·마산포 군용지 잠매를 위한 일본 내각의 결재구조
 - IV. 한말 일본 대본영의 진해만 요새 건설과 군사도시 인프라 구축
 - V. 결 론
- 참고문헌, 국문초록, Abstract

I. 서 論

최근 한국의 근대도시에 대한 연구는 역사는 물론 건축, 지리, 문학 등 다양한 분야에서 진행되고 있다. 특히 근대식민도시에 대해서는 서울(경성), 부산, 인천 등 대도시는 물론 목포, 군산, 마산, 나진 등 중소도시까지 그 변화 과정이 밝혀지게 되었다. 이에 따라 각 도시의 「거류지」형성·도시성장 과정에 대한 윤곽은 대체로 밝혀지게 되었다.¹⁾ 그러나 거류지·식민도시연구가 국

1) 김용욱, 1967, 『한국조계에 관한 연구』 태화출판사 : 손정목, 1882, 『한국개항기 도시사회경제사연구』 일지사 : 高秉雲, 1987, 『近代朝鮮租界史の研究』 雄山閣 등. 일제강점기 경성, 부산, 나진 등 식민도시계획에 대한 연구성과는 다음을 참조. 金慶南, 2011a, 「戰時体制期における近代都市釜山開發の植民地的性格」 『近代植民地釜山の都市形成 - 「日本帝国」における植民地と人の移動をめぐって』 九州国際大学 経営經濟論集 第18卷1号. 또한 마산에 대해서는 다음을 참조. 이성환, 1976, 「마산의 성장과정 및 그 특징에 관한 연구」 : 이규성·허정도, 2000,

내적 혹은 지역의 변화과정을 밝히는 것에 집중되어 있기 때문에, 식민도시가 건설되거나 폐쇄되는 실정이 국내외적 연관구조 속에서 충분히 파악되어 있다고 할 수 없다.

국내외적 연관구조로 파악해야 하는 이유는, 한국의 근대식민도시 건설과 성장의 계기가 국내의 주체적인 요인보다 세계 제국주의 식민지 쟁탈전 하에서 외세로부터 강제된 경우가 많기 때문이다. 특히, 해방 이전의 한국의 개항도시는 거의 식민도시이며, 거류지가 성장하여 지역의 중심 도시로 성장한 케이스가 대부분이기 때문이다. 그러므로 세계 제국주의 전쟁에서 열강은 자신의 필요성에 따라 근거지 혹은 식민도시를 만들고자 하며, 한국의 영흥만이나 진해만에도 러일의 각축 속에서 군사요새기지가 만들어졌고, 그 일대의 원산·부산·마산이 핵심도시로 개발된다. 따라서 군사요새기지의 건설과 식민도시개발은 밀접한 관계를 가지고 추진된다.

제국이 어떠한 목적으로 식민지에서 도시를 개발하느냐 하는 것은, 근대도시 구성의 3대요소 어젠다, 사상, 문화 가운데, 가장 중요한 어젠다를 결정하는 일차적인 요인이다. 1950년대 초 미국은 아시아와 남아메리카에 텔레비전을 도입하도록 원조한다. 이것은 겉으로는 텔레비전 도입의 형태를 띠고 있지만, 실제로는 군사통신망을 구축·강화하고, 그 통신망을 사용하여 반공산주의 프로파 간다를 흘려보내고, 나아가 미국의 텔레비전 수상기를 파는 정보·외교정책이었다.²⁾ 이와 마찬가지로 일본 또한 한국, 타이완, 만주 등에 도시를 만들고, 철도망, 도로망, 전신망, 항로 등

「20세기초 원마산 도시공간의 복원적 연구」: 이규성·허정도, 2002, 「일제강점기 원마산의 도시공간 변천과정 연구」: 박희운, 2000, 「개항이전 마산시 도시형성 및 변화과정에 관한 연구」: 허정도, 2005, 『전통도시의 식민지적 근대화 일제강점기의 마산』 신서원.

2) 有馬哲夫, 2009, 『昭和史を動かしたアメリカ情報機関』, 平凡社, 29쪽.

을 구축한 것은 제국의 군사적인 목적과 정치경제적 목적을 달성하기 위함이었을 것이다.

지금까지 연구에서, 한국 개항도시의 개발 목적을, 일본의 교두보나 전진기지를 만들기 위함이라고 말하고는 있으나, 교두보가 어떻게 만들어졌는지, 실질적으로 일본내각이나 참모본부, 육군성이 어떠한 논의·결재구조 속에서 추진했는지에 대해서는 간과하고 있다. 비록 대한제국이 근대적 도시를 설계하지만, 결국 자주권마저 빼앗기면서, 일본의 주도하에서 개항도시가 개발되었다는 점을 부인할 수 없다. 이 때문에 합방되기 이전부터, 한국의 도시 건설도 일본 국내의 결재 구조 속에서 결정되고 추진되었다는 점을 주시해야 할 것이다.³⁾ 이로 인해 도시 개발은 군사적 목적성과 식민성을 떨 수 밖에 없는 구조이었다.

최근 식민도시에 대한 논점으로 제기되고 있는 것도 식민도시의 군사요새 도시로서의 성격이다.⁴⁾ 조선의 경우 일본군의 요새지대는 1905년 창설된 진해만·영흥만요새지대와 1942년에 창설

3) 일제강점하의 공업개발을 둘러싸고 근대개발시혜론과 수탈론 논의는 지금도 계속되고 있다. 이 논의는 1980년대 동아시아 NIEs론으로 더욱 활발하게 논의되었는데, 한국에서 근대개발 시혜론은 보수파정치의 이론적인 배경으로서 연구되고 있다. 필자는 「근대개발」 논의는 공업분야 뿐만 아니라, 도시개발분야야말로 개발의 핵심요소로서 본격적인 논의가 필요한 분야라고 생각한다. 현재, 한국의 근대도시사는 활발하게 연구되고 있다. 그러나 근대라는 측면이 강조되어 식민도시의 특질에 대한 것은 충분히 연구되고 있다고 볼 수 없다. 특히 일본의 한국 점령을 위한 군사요새의 설치와 함께 추진되는 도시개발이라는 관점에서 식민도시 역사를 재구성할 필요성이 있다.

4) 기무라 겐지(木村健二)는 필자가 최근 식민도시 부산의 군사요새도시로서의 성격을 규명한 것에 대해, 일본의 아오모리(靑森)나 야마구치(山口)를 군사도시로 접근한 것처럼 중요한 논점을 제기한 것으로서 이러한 관점에서 식민도시를 재구성할 필요가 있다고 코멘트하고 있다(「報告5、コメント」『特集シンポジウム近代植民地釜山の都市形成-「日本帝国」における植民地と人の移動をめぐって』九州国際大学 経営経済論集 第18巻1号, 2011年).

된 여수·나진 요새지대가 있다.⁵⁾ 이 요새지대와 관련되어 건설된 신흥도시는 마산, 부산, 진해, 원산, 여수, 나진 등이 있는데, 이 식민도시들에 대한 연구도 요새지대와의 관련을 가지고 접근되지는 못하고 있다.

한말 부산과 마산 개항장의 일본인의 토지 잠매⁶⁾와 그 개발에 관한 연구는, 야마와키시게오(山脇重雄), 오야마 이와오(大山 巖), 김용욱, 김의환, 손정목, 최원규, 사카모토 유이치(坂本悠一), 김정남, 허정도 등의 연구가 있다.⁷⁾ 이 연구들에서 대한제국기 부

-
- 5) 조선 주둔 군대와 요새지대에 대한 자세한 것은 다음을 참조. 戸部良一, 「朝鮮駐屯日本軍の実像: 治安・防衛・帝国」: 강창일, 「朝鮮侵略と支配の物理的基盤 朝鮮軍」: 宮田節子編・解説, 1989, 『朝鮮軍概要史』不二出版: 古野直也, 1990, 『朝鮮軍司令部: 1904~1945』, 国書刊行会: 編輯委員會, 1999, 『朝鮮所在重砲兵聯隊史』: 신주백, 2009, 『1945년 한반도 남서해안에서의 ‘본토결전’ 준비와 부산·여수의 일본군 시설지 현황』, 『군사』 제70호, 국방부군사편찬위원회.
- 6) 잠매는 구래의 부동산 거래관행에 따라 토지를 매득하는 방법이나 외국인의 토지소유는 금지되었기 때문에 몰래 거래하는 행위를 말한다. 당시 부동산 거래는 매주(賣主)가 계약체결시 작성한 문기(文記)나 수표, 그리고 그 이전 거래할 때 작성한 문권(文券) 일체를 넘겨주는 것으로 완결되었다. 관습적으로 민간사회에서 통용되던 불문법적 형태의 거래 제도였다. 이 과정에 국가는 개입하지 않았으며, 소송 등 문제가 발생되어 이를 판정할 경우에만 관여하였다(박병준, 1972, 『전통적 법체계와 법의식』 『한국법제사고 근세의 법과 사회』 1974). 이 구래의 관습법에 의한 토지잠매는 근본적인 개혁이 요청되고 있었다. 1900년대 토지잠매에 대한 자세한 내용에 대해서는 김용섭, 1988, 「고종조 왕실의 군전수도문제」 『한국근대농업사 연구(하)』 일조각: 최원규, 1995, 「1900년대 日帝의 土地權侵奪과 그 管理機構」 『釜大史學』 第19輯 참조.
- 7) 山脇重雄, 1959, 1960, 1963, 「馬山浦事件」 『東北大學文學部研究年報』 筆 9, 10, 13호
金義煥, 1968, 「朝鮮을 둘러싼 近代 露日關係研究-馬山浦事件과 港民의 抵抗을 中心으로」 『亞細亞研究』 11권 3호, 고려대 아세아문제연구소
大山梓, 1968, 「日露戰爭直前における日露關係の問題-馬山浦事件」 『明治時代軍事史』
金容旭, 1981, 「馬山浦滋福洞, 月影洞 및 栗九味の 土地事件-露国單獨租界를 중심으로-」, 『法史學研究』 第6호
손정목, 1882, 『한국개항기도시사회경제사연구』, 일지사: 최원규, 1995, 「위의 논문」: 최원규, 1999, 「19세기 후반 20세기 초 경남지역 일본인지주의 형성과정과 투자사례」 『韓國民族文化』 14, 부산대 한국민족문화연구소: 坂本悠一・木村

산·마산의 토지 잠매를 둘러싼 러일의 대립, 토지 잠매의 방법과 성격, 부산·마산의 군사적 도시개발, 중일전쟁기·태평양전쟁기의 진해만 요새지대의 재편성과 관련된 부산개발의 군사적 특징에 대해서는 대체로 밝혀졌다.⁸⁾ 하지만, 이 연구들에서도 대한해협을 둘러싼 진해만요새지대의 건설과정과 그와 관련된 식민도시개발이 일본정부의 어떠한 정책적 결단과 결재 구조⁹⁾ 속에서 추진되었는지에 대해서는 충분히 파악되어 있다고 볼수는 없다.

이로 인해 독립국가 대한제국 개항장에서 러시아나 일본이 명의를 차용하여 토지를 잠매하고 군용지로 전환시킨 주체와 실태, 그 성격에 대해서도 제대로 규명되지 못하고 있다.

그 이유는 한국의 근대식민도시 건설이 일본이나 러시아 본국의 군사적 정책결정 구조 속에서 진행되었으며, 한국 침략을 목적으로 군사적으로 진행되었기 때문에, 당시에는 관련 자료가 모두 극비로 관리되어 자료를 입수하기 어려웠기 때문이다.¹⁰⁾

이러한 문제의식을 가지고 본고는 19세기 말 20세기 초 세계 제국주의 각축전 속에서 동아시아 패권을 둘러싸고, 일본 대본영

健二, 2007, 『植民地 都市釜山』 山川出版社 : 김경남, 2011a, 「앞의 논문」 : 허정도, 2005, 「앞의 책」.

8) 자세한 것은 金慶南, 2011a, 「앞의 논문」 참조.

9) 제국과 식민지의 결재구조에 대해서는 다음 논문을 참조. 金慶南, 2011b, 「帝國と植民地における 不均衡殘存記録の構造と植民地支配の特徴－朝鮮總督府の山林資源記録を中心に」 『アーカイブズ學研究』 第15号, 61~88쪽.

10) 미야다 세즈코(宮田節子)는 1990년대에 조선군에 대한 연구가 절박하다는 것을 제기하면서, 군 자료집의 중요성에 대해 강조하고 있다. [조선군개요사]에는 1942년 제국의회 특별예산 설명회에서 조차 조선총독부 재정국장 미즈타 나옴사(水田直昌)가 군사적인 비밀유지를 이유로 설명을 다할 수 없다고 말하고 있을 정도이다. (宮田節子編·解説, 1989, 十五年戰爭極秘資料集『朝鮮軍概要史』 不二出版).

참모본부가 진해만 요새지대를 만들어가는 과정을 밝히고, 이와 연관되어 부산과 마산의 군사적 도시 인프라를 설치해 가는 실태와 그 성격을 밝히고자 한다. 특히 진해만 요새의 중심축인 부산과 마산에서 발생한 토지 잠매의 성격을, 일본정부의 정책과 결재구조를 통해 살펴본다. 또한 진해만 일대의 보조이주어촌의 건설, 항로, 군용철도, 군용전선 등 군사요새도시의 인프라를 어떻게 구축하는 지에 대하여 검토하고자 한다.

본고에서는 주로 일본의 내각,大本營 참모본부¹¹⁾, 육군성, 외무성이 작성한 결재문서를 사용한다. 이 공문서들은 일본의 방위성사료연구소, 국립공문서관, 외교사료관 등이 소장하고 있다. 당시 조선주둔 일본군은 덴노(天皇)의 직예로서 일본제국군의 직속이었고, 군대를 담당하고 있던 참모본부, 육군성, 해군성은 모두 일본에 있기 때문이다. 방위성사료연구소에 참모본부, 육해군의 청일전쟁·러일전쟁 시기의 일기와 결재문서가 보존되어 있다. 『육해군일기(陸海軍日記)』는 1945년 GHQ (극동 연합군사령부)가 일본을 점령하였을 때 압수해간 문서로서, 1960년대에 일본으로 반환된 자료이다.

국립공문서관에는 일본 내각총리 결재문서가 메이지(明治) 시기부터 1945년까지 남아있으며, 최종결재문서인 덴노(天皇)의 『서명원본(御署名原本)』이 보존되어 있다. 특히 통감부와 총독부의 인사, 예산, 관제에 관련된 정책 결정 결재문서는 모두 이 공문서관에 있다. 부산과 마산 뿐만 아니라 한국의 거류지를 점령하는 작전부터, 거류지의 인사, 예산, 관제 등을 결정한 것은 모

11) 일본大本營은 전시중에만 설치되는 천황 직예의 최고 통수기관으로서, 육군 및 해군을 지배하에 두고 있다.大本營은 참모본부 및 군령부 조직이 담당하였다. 일본의 참모본부에 대한 자세한 것은 大江志乃夫, 1985년, 『日本の参謀本部』, 中公新書 참조.

두 일본정부 속의 칙령, 법률 속에 규정되어 있다.¹²⁾ 외교사료관에는 메이지(明治) 초기부터 1910년까지의 외교 문서가 남아있으며, 참모본부와 육군성이 결정한 사항을 부산포와 마산포에서 직접 수행하였으며, 다양한 정보를 수집하여 내각과 육군성, 참모본부에 의견을 제안하는 등의 역할을 한 자료가 보존되어 있다.¹³⁾

진해만 요새지대와 부산과 마산을 대상 지역으로 선택한 것은, 한말 열강이 동아시아를 제패할 때의 전략적 요충지이며 핵심적인 군사요새도시이기 때문이다. 이 도시들은 중국 러시아로 가는 대륙루트와 동남아시아 유럽으로 가는 해양루트 양 방향에서 중요한 지역이기 때문에 러시아와 일본 등 열강은 러일전쟁기는 물론 아시아 태평양전쟁기까지 진해만요새를 확보하는데 주력하게 된다. 따라서 진해만 요새지대와 이 두 식민도시는 세계 각축전에 따른 도시개발의 변화와 변용 과정을 무엇보다도 잘 볼 수 있다.

본고의 구성은 다음과 같다. 첫째, 진해만 요새지대 건설의 배경으로서, 한말 대한해협을 둘러싼 동아시아 정세와 부산포 마산포 점령계획으로 나타난 러일의 진해만 군사거점 확보 대결과 일본 야마가타 아리토모(山縣有朋) 내각의 사활을 건 진해만 점령정책에 대해 검토한다. 둘째, 진해만요새지대를 점령하기 위해 부산포, 마산포의 토지를 잠매한 일본내각의 결재구조와 국제적인 커넥션, 토지임대 수익금의 활용 등에 대해 살펴본다. 이를 통해 육군성과 참모본부가 명의 차용으로 획득한 토지 잠매의

12) 일본정부와 식민지 집행기관 조선총독부의 주요정책 결정과정의 결재구조에 대해서는 金慶南, 2011b, 「앞의 논문」, 61~88쪽 참조.

13) 일본 국립공문서관 소속기관 아시아역사자료센터에서는 국립공문서관, 외교사료관, 방위성사료연구소의 1945년 이전 자료를 계속 디지털화하여 무료로 제공하고 있어, 다양한 기록정보를 얻을 수 있다.

성격을 밝힌다. 셋째, 한말 러시아와의 대결과정에서 일본 대본영과 육해군이 독립국가 한국의 진해만요새를 불법적으로 점령하는 과정을 밝히고, 그 국제법적 불법성에 대해 검토한다. 그리고 일본정부가 진해만 군사요새지대에 일본인 보조이주어촌을 건설하고, 항로, 군용철도, 군용전선 등을 만들어 일본과 한국, 신흥 식민도시 사이에 군사적인 인프라를 구축해가는 실태를 밝히고자 한다.

II. 한말 러일의 각축전과 일제의 진해만 점령의 배경

1. 한말 대한해협을 둘러싼 동아시아 정세와 러시아의 마산포 조차

한말 대한해협을 둘러싼 동아시아 정세

주지하듯이, 20세기 초, 구미 열강의 식민지나 이권획득경쟁의 최종적인 무대가 된 것은 동아시아 지역이다. 동아시아에서 중요한 항만인 뤄순(旅順)·다롄(大連)이 러시아의, 웨이하이웨이(威海衛)나 주룽반도(九龍半島)가 영국의, 자오저우만(膠州灣)이 독일의, 광저우만(廣州灣)이 프랑스의 [租借地]로 되어, 이를 중핵으로 세력 범위가 설정되었다. 이 동아시아 분할 경쟁에 일본과 미국이 참가한다.¹⁴⁾ 러일의 동아시아의 패권 쟁탈전에서 그 초점이 된 곳은 뤄순(旅順)·다롄(大連)과 진해만이었다. 러시아는 1898년 3월 27일, 청국과 요동반도의 조차에 관한 조약을 체결하였다. 러시아는 해군기지로서 뤄순(旅順), 다롄(大連) 및 부근의 해면을 25년간 조차하게 되고, 동청 철도간선부터 다롄만(大連灣)까지

14) 『日露戦争と第1次世界大戦、朝日クロニクル20世紀 第1巻 明治34年—大正5年』、朝日出版社、1905-2, 1905-3쪽.

지선을 부설할 권리를 획득하였다.¹⁵⁾ 한편 러시아는 한국에 해군근거지를 만들기 위해서도 한반도의 울릉도, 거제도, 마산포, 부산포 등을 조사하였다.

이 때문에 일본 야마가타(山縣有朋) 내각은, 한국을 대륙으로 진출하기 위한 교두보로 만들기 위한 조치로서, 러시아의 블라디보스톡-여순 항로를 차단하고자 대한해협 진해만을 사활을 걸고 지켜내고자 하였다. 대한해협은 일본의 쓰시마해협과 접해있고, 특히 일본의 입장에서는 본토 방어를 위해서 전략적으로 매우 중요한 해양항로이다. 중요한 항구로서 부산, 마산, 진해, 통영, 삼천포 등이 있다. 이러한 중요성 때문에 일본은 영국, 미국과 동맹하여, 진해만을 점령하는데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았다.

러시아는 1899년 4월 러시아 기선회사의 명의를 빌어 마산포의 토지를 잠매하기는 했지만, 다롄(大連)과 뤼순(旅順)의 요새지대 개발을 중시하는 정책에 밀려, 마산 해군기지 개발은 본격적으로 추진되지 않았다. 러시아는 로젠-니시 협정¹⁶⁾과 한국과 타국가 토지 불양도 협정¹⁷⁾을 맺어 일본이 마산포와 그 인근 토지를 선점하여 전략적으로 사용할 수 없도록 조치하였다. 그러나 러시아가 영미 등의 견제와 짜르정부 내부의 의견 대립으로,

15) 『日本外交文書』 제31권 제1책, 307~308쪽.

16) 로젠-니시 협정(1898년 4월 25일)에 대한 것은 鄭肯植, 2002, 『韓國近代法史 改轉英社』; 25~26쪽; 和田春樹, 2009, 『日露戰爭 起源と開戦(上)』 岩波書店, 280~281쪽 참조.

17) 러시아가 한국과 맺은 두개의 협정은 다음과 같다. 첫째, 1900년 3월 30일 마산포 10개 지역 이외 남포지구를 요구하고, 또한 거제도와 주변 섬을 타국에 양도하지 못하도록 하는 협정을 주한공사 파블로프와 한국정부 사이에 체결하였다. 둘째, 1900년 6월 3일에는 러시아 부영사 소코프와 한국 외무부 관리 정대유 간에 토지조차 협정을 체결하였다. 러시아의 태평양함대가 마산포의 개항장 토지의 일부를 조차하여 마산포 문제에 지속적으로 개입할 근거를 마련하였다(최덕규, 2008, 『제정러시아의 한반도정책 1891~1907』 경인문화사, 79쪽).

진해만 점령정책을 적극적으로 추진하지 못한 것은 전략적으로 볼 때 큰 실책이었다.¹⁸⁾ 일본이 진해만을 차지하는 것은 그들이 예견한 보스프루스화 현상을 재촉하는 것이기 때문이었다.

러시아의 부산포 마산포 점령계획의 실시

러시아는 청일전쟁 이후 부산의 절영도를 조차할 뜻을 보였으나, 영·미·독이 여기에 대항하여 각국조계를 정하였다. 본격적으로는 1897년 7월부터 8월에 걸쳐 부산의 절영도를 조차하려고 하였다. 1898년 2월에 러시아 군함이 부산 절영도에 상륙하여 그들의 조차예정지에 식목하는 등 실력을 행사했으나, 국제적으로 긴장감을 유발시켜 일본과 영국의 공동저지로 성공하지 못했다.¹⁹⁾ 또한 이때 이미 일본인 하자마 후사타로(迫間房太郎) 등의 명의로 일본 육군이 절영도의 토지를 잠대하였기 때문에 러시아는 목적을 달성할 수 없었다.²⁰⁾

부산의 근거지 확보에 실패한 러시아는 이번에는 마산포를 주목하였다. 1899년 4월 21일 두바소프 제독이 나가사키(長崎)에 정박중이던 순양함 [러시아]호와 [드미트리 돈스꼬이]호를 이끌고 마산포에 도착하여 토지를 가계약하였다. 이 사실을 [보스토츠니 베스트닉]지 (블라디보스톡 발행)가 4월 30일자로 [러시아 함대에 의한 마산포의 점령]이라고 보도하면서, 한국 조정은 당황하고, 일본은 러시아의 마산포 해군기지 건설이 자신들의 심

18) 和田春樹, 2009, 『앞의 책』 295쪽 참조.

19) 손정목, 1982, 『앞의 책』 1 13쪽(원문서는 『구한국외교문서』 17권 俄案, 『日本外交文書』 30권 문서번호229-326, 31권 166-178, 김용욱, 「부산조계고」, 103~105쪽, 『부산시지 상』).

20) 『日本外交文書』 제31권 제1책, 194-195쪽. 대한제국의 서재필이 이끄는 독립협회도 러시아의 절영도 점령을 예의주시하고 있었다. 절영도 문제에 대해서는 손정목, 1982, 『앞의 책』 108~114쪽 참조.

장을 겨누는 칼이 된다고 판단하였다. 마산포 문제는 한·러·일 삼국간의 새로운 외교분쟁의 대상이 되었다. 로젠-니시 협정의 체결을 통하여 한반도문제를 둘러싸고 의견상 진정되었던 러일 관계는 이제 러시아 해군의 마산포 조차기도가 구체화됨에 따라 새로운 갈등국면으로 돌입하게 되었던 것이다.²¹⁾

동년 5월 5일 러시아는 마산포 월영동, 울구미 등에 3만평을 점령하여 러시아제국 전관거류지로 선언하고, 바로 군사 병영 시설들을 만들기 시작했다. 러시아국 동양 함대의 육상 사령부, 숙소, 장교집회소, 하사집회소 등을 만들었으며, 건축재료는 러시아 운송선이 중국의 뤼순(旅順)이나 南洋방면에서 실어와 충당하였다. 수개월에 걸쳐 준공하였다. 그런데 이때 러시아 사령부를 만든 것은 일본인 공사인부이었다. 1901년 3월 3일, 소코프 영사가 일본영사관에 가서 일본인 공사업자와 계약을 하고 공비는 영사관을 통해 교부하였다.²²⁾ 일본인에게 사령부의 공사를 맡긴 것은 러시아의 또 하나의 실책이다. 사령부, 숙소 등 내부구조는 군사 기밀사항에 해당되기 때문이다.

이외에 러시아는 마산포 연안에서 특정지구의 영조 또는 잠조를 한국측에 요구했지만, 연안의 주요 지역은 일본측에서 모두 매수한 상태이어서 한국측에 독촉해도 소용이 없었다.

한편 러시아 알렉세예프 제독은 1900년 10월 러시아 군대가 만주를 점령한 후, 동년 12월 동계 훈련을 명목으로 4척의 함대를 뤼순(旅順)에서 진해만으로 이동시킨다. 그리고 1901년 1월과 2월에 걸쳐 마산포에 정박시킴으로써 한반도 남단에 대한 기존

21) 최덕규, 2008, 『앞의 책』, 40~42쪽.

22) 『마산항지』, 56쪽. 러일전쟁이 발생하기 전이지만, 러시아는 육상사령부 건축 공사를 일본인에게 맡긴다. 러시아 정부 내부에서는 일본이 수년내로 전쟁을 일으킬 것이라는 예견하고 준비하고 있었는데, 왜 기밀사항인 사령부의 내부구조를 알 수 있는 건물을 일본인들에게 맡겼는지 검토가 필요하다.

권리를 재확인하기에 이르렀다.²³⁾ 이 사건은 러시아의 만주 점령이 궁극적으로 마산포의 점령으로 이어질 것이라는 위기감을 일본 정부에 각인시키는 결과를 초래하였다. 더욱이 1901년 2월 알렉세에프-증기협약이 공개됨에 따라 러시아의 만주점령 계획이 폭로되었기 때문에 러일관계는 이른바 [1901년 3월 위기]로 불리는 일촉즉발의 개전위기에 다다랐던 것이다. 일본 대본영 참모본부는 러시아의 진해만 해상훈련과 마산포 정박을 해상시위로 간주하고, 구례항(吳), 미야지마항(宮島), 사세보항(佐世保) 등에 있는 37척의 전함들에게 출동태세를 갖추게 하였다.²⁴⁾

2. 일본 야마가타 내각의 진해만 점령 정책

야마가타 내각의 한국 진해만 점령에 대한 인식

부산에서 진해만 해군근거지²⁵⁾ 마련에 실패한 러시아가, 1899년 5월 5일 마침내 마산포 월영동 자복포 지구에 약 30여 만평의 경계 표시를 하자, 일본영사관은 바로 하자마(迫間)에게 토지를 잠매하도록 지시한다.²⁶⁾ 이것은 야마가타 아리모토 (山縣有

23) 마산포 사건과 러시아의 울구미 조차지 문제에 대해서는 다음을 참조. 손정목, 1982, 『앞의 책』: 山脇重雄, 1959, 「馬山浦事件」, 東北大学文学部研究年報, 第9, 10, 13上号: 井口和起, 1998, 『日露戦争の時代』 吉川弘文館, 72~74쪽.

24) 최덕규, 2008, 『앞의 책』 82쪽.

25) 러시아가 마산포 울구미에 단독 조차지 설정에 대해서, 당시 일본정부는 러시아의 [해군근거지]설정이라고 커다란 [공포감]을 가진 것에 대해 의문을 제기. 해군근거지라기 보다는 탄수공급과 병사의 병원, 휴양지시설 등 당시 열강이 세계 각지에 건설한 코팅 스테이션 (給炭地) 내지 마카로프가 정의하는 저탄장 혹은 제2등 근거지에 가깝다라는 의견이 있다(山脇重雄, 1959, 「앞의 논문」). 하지만 다렌(大連)과 뤼순(旅順)에 요새를 설치한 러시아이고, 알렉산드리아 제독은 보스프루스화 현상을 염려하여 진해만에도 요새를 설치할 필요성은 충분히 인식하고 있다. 따라서 러시아의 당면 목적은 탄수보급소를 설치하기 위함이라고 하더라도 궁극적인 목적은 진해만 요새의 설치에 있다고 보기 때문에 본고에서는 [해군근거지]라고 썼다.

朋)내각 참모본부 육군성의 발빠른 대책이었다.

야마가타 내각은 동아시아 패권이 러일의 대결로 압축되었고, 러시아가 여순과 대련요새를 점령하고, 만주까지 점령하자,²⁷⁾ 절대절명의 위기감을 느끼게 된다. 거기에 러시아 해군이 마산포에 정박하고 동계훈련을 실시하면서 한반도 점령이 현실화되자, 신속하게 토지잠매 대책을 지시한다. 야마가타 내각의 진해만 사태와 대한 점령정책에 대한 인식을 동년 10월 11일 제출한 대한정책 의견서를 통해 살펴보자.²⁸⁾

러시아국은 다롄(大連) 뤼순(旅順)의 요충을 점령한 이래, 전략상 방책으로 조선 남동 연안에서 하나의 군함정박소 점령을 제1의 정략으로 한다. 이에 육해군의 병력과 재정의 실력을 강구하고 우리의 방략을 반드시 정해야만 한다.

조선국은 우리 이익선의 범위내에 있는 것으로서 어떠한 곤란이 있더라도 이를 타개해서 제국의 이익을 유지 확충해야만 한다(밀줄 강조 필자)

수천년래 가장 관계가 깊은 한국에 대한 우리가 이익을 포기하고 강건너 불보듯 하는 것은 장래 야국 自衛상 큰 문제로 되어 숙려하고 또 숙려하여 우리 제국의 방략을 결정해야만 한다. 그래서 목하 러시아가 한국의 마산포 혹은 기타 정박소를 점유하게 되면, 그들과의 충돌은 피하고 ... 불리한 위치에 서지 않는 수단 방법을 강구하여 저지 절충하는 것이 당국자의 책임(밀줄 강조 필자)이다.

26) 손정목, 1982, 『앞의 책』 340쪽.

27) 러시아의 여순 대련 조차문제와 한국문제에 대한 구체적인 것은 大江志乃夫, 2001, 『世界史としての日露戦争』, 立風書房, pp.77~86 참조.

28) 大山樺, 1968, 「日露戦争直前における日露関係の問題－馬山浦事件」 『明治時代軍事史』 74~75쪽.

이렇듯, 야마가타는 수천년 동안 가장 관계가 깊은 한국에 대한 제국의 이익선을 유지 확충하기 위해 전략을 세워야 하며, 불리한 위치에 서지않는 [수단방법을 강구하여] 저지 절충해야한다는 것을 명백히 하고 있다. 그래서 그 구체적인 개요에 대해서 다음과 같이 말하고 있다.

제1, 露國이 한국의 마산포·거제도 혹은 기타 전함정박소 또는 요새에 준하는 지역을 점령하고 또는 차용하려고 기획하여 조선정부를 위협하던가 또는 그 목적을 실행하는 수단이 우리 자위상 타기할 수 밖에 없을 때는, 露國에게 일본과 조선간의 이해관계 및 수백년 내력사의 관계를 세론한다. (중략) 그때 담판에는 충분한 여지를 주고 도저히 러시아가 충고를 받아들이지 않을 때는 대처하는 여유가 필요하다.

제2, 露國이 만약 우리 충고를 거절할 경우는 지형상 및 수백년에 걸친 일한 역사의 관계에 기인하는 우리 이익을 포기하는 정책을 취할 것인가 아닌가를 결정하지 않으면 안된다. 이 제국의 존망흥폐에 따르는 중요문제를 속히 어전회의에 주청하고 신중한 검토를 진력하고 제국의 중요정책을 결정할 만하다.²⁹⁾

위에서 보듯이, 야마가타 내각은 대한국 정책을 국운의 사활을 건 정책이라고 인식하고 있으며, 한국을 동아시아 침략전쟁에서 최선의 이익선이라고 생각하고 대책을 강구한다. 한국이 러시아의 수중에 넘어가면 일본 본토가 전쟁터로 변할 위험성이 커지기 때문이다. 마산포 사건은 표면적으로는 일본상인과 러시아 기선회사 사이의 토지소유권 문제로 나타났지만, 야마가타 내각의

29) 大山 梓編, 1966, 「山縣有朋意見書」『原書房明治百年史叢書』254~255쪽.

입장에서는 국가의 존립흥폐가 달린 중요사건으로 인식되었다.³⁰⁾

야마가타가 대한의견서에서 제시한 [불리한 위치에 서지않는 수단방법]이 진해만 부산포와 마산포 일대의 토지를 잠매하여 [일본 육해군]의 기지를 만드는 정책이었다.³¹⁾ 야마가타는 동아시아에서 제국으로 나아가기 위해 필요한 육해군의 예산을 확보하기 위하여 조세를 증액하여 돌파하고자 하였다.³²⁾ 그리고 일본 육해군은 진해만일대에서 바로 사활을 건 군용 토지 잠매를 시작한다.

이상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러시아는 대련, 여순요새에 중점을 두고 개발을 하고 있었고, 1899년 4월부터는 마산포에 대한 토지구매, 동계훈련 등을 통해 한반도 남단에 대한 권리를 확보하고자 한다. 대한해협을 보스프루스화 현상을 막기 위한 것이었다. 이에 대항하여 일본은 영국의 지원에 힘입어 마산포의 몇개의 리에 해당하는 토지와 부산포의 광대한 토지를 개인의 명의를 빌어 잠매한다. 이 정책은 당면으로는 러시아의 발틱함대를 물리치기 위한 군사요새기지로 사용하기 위함하였고, 궁극적으로 대륙진출의 전진기지로서 활용하기 위한 전략이었다.

30) 일본의 제국주의적 형성에 대해서는 井口和起, 2000, 『日本帝國主義の形成と東アジア』, 名著刊行會 참조.

31) 군용지 잠매정책의 주무부서는 육군성과 참모본부이지만, 최종결재자가 누구인지에 대한 기록은 아직 발견하지 못했다. 다만, 육군성이 주로 담당하고 참모본부가 보고를 받고 있기 때문에, 야마가타 내각총리가 결재한 것이라 생각된다. 앞으로 검토해야 할 과제이다.

32) 야마가타 내각은 1899년도 예산 세출 2억2천여만 엔, 세출부족 37백여만 엔을 地租증세로 돌파하려고 하였다. 이때 내각과 헌정당이 타협하였다. 그런데 지방의 유지들이 이 지조증세안을 반대하자, 야마가타는 헌정본당 의원 수명에 대해 政商을 통해 돈을 주어 매수. 이때 야마가타는 宮中の 예비비를 유용하였다. 총 98만엔을 郵船회사의 배당을 5주로 간주하고 사용하였다 (小山博也, 「明治の内閣(第1代~第14代)」 白鳥令, 1979, 『激動の日本政治史明治大正昭和 歴代国会委員 史録(上巻)』 阿坂書店, 24쪽).

Ⅲ. 부산포·마산포 군용지 잠매를 위한 일본정부의 결재구조

1. 부산포 군용지 잠매를 위한 결재구조

기존 연구에서, 개항기 일본인 하자마(迫間)가 부산포와 마산포에서 토지를 잠매했고, 그 토지를 육군에게 헌납했다라고 말해지고 있다.³³⁾ 그러나, 일본 육군이 어떻게 관여하고 있는지에 대해서는 충분히 밝혀져 있지 않다. 본고에서는 1905년 러일전쟁 직전의 약 10년간을 대상으로 일본 육군성과 참모본부, 외무성이 작성한 공문서를 분석하여, 마산과 부산의 토지 잠매의 성격을 규명하고자 한다. 진해만요새지대 일본군의 토지잠매 그 자체가 식민도시 형성의 출발점이 되는 것이다.

일본은 1876년 강화도조약과 함께 최초로 부산을 점령한다. 거류지 일본인의 보호를 구실로 군인을 배치하는데, 1885년 12월 27일 부산항 절영도내에 기지를 만든다.³⁴⁾ 그리고 1886년 1월 31일 일본해군용 석탄저장을 위하여 절영도 흑석암의 땅 4,900평을 조차하는데, 독변교섭통상사무 김윤식과 일본국 임시대리공사 다카히라 고고로(高平 小五郎)간에 조인된 것이다.³⁵⁾

그런데 1895년 러시아정부가 부산의 절영도 일부를 해군기지로 사용하기 위해 조차하고자 할 때, 영·미·독 등이 이에 대항하여 총세무사 브라운을 시켜 이곳에 각국조계를 정하여 경계를 표시하였다. 한국정부는 이 해 7월에 아예 외국인은 토지나 가옥을 구입하지 못하도록 하였다. 1898년 3월 30일에는 외부대신 이

33) 和田春樹, 2010년, 『앞의 책』 295쪽.

34) 손정목, 1982년, 『앞의 책』 87쪽 (원문서는 구한국외교문서 1권 일안 1 문서 번호 637, 639, 640, 643, 644호 등).

35) 손정목, 『앞의 책』 112쪽 (원문서는 구한국외교문서 1권 일안 1, 548, 549, 637, 640, 641, 643 등, 日本外交文書 19권 문서번호 135호).

도재(李道宰)의 주재하에 영국, 미국, 프랑스, 독일 등이 절영도 동북단 90만 평방미터를 각국조계의 기지로 합의하였다.³⁶⁾ 이렇게 영미를 비롯한 각국이 러시아가 한국에 해군기지를 설치하는 것을 반대하였기 때문에, 러시아는 부산 절영도의 토지획득에 실패한다.

이러한 틈을 타, 일본 육군은 부산에 연병장을 건설하기 위하여 하자마(迫間)를 시켜 토지를 매수하였다. 이것을 알 수 있는 것은 육군성이 작성한 「부산 연병장의 건」으로서, 육군성 대일기류 잡문서 『明治32年 기밀문서』에 편철되어 있다.³⁷⁾ 그 내용은 다음과 같다. 「1899년 12월 육군성이 부산에 연병장을 신설하기 위해, 거류지 서부에 토지 3천여 평을 2천5백엔에 매수했다」는 내용. 「1901년 10월 2일 부산연병장 용지 매수금으로서 2500엔을 하자마(迫間)에게 지불하라고 명령」하는 내용. 「부산주차대 연병장 용지매수에 진력한 하자마(迫間)에게 300엔의 보수를 지급」하라는 내용. 「1902년 3월 27일 연병장 매수자금을 하자마(迫間)가 수령」한 내용 등이다.

36) 손정목, 1982, 『앞의 책』 114쪽(원문서는 구한국외교문서 3권 일안3 문서번호 4574, 4575, 4576, 4582, 4590, 4619, 4690호, 4576호 付2).

37) 陸軍省, 1907, 「釜山練兵場の件」 『明治32年起 機密文書編冊』 제1호부터 제6호로 편철되어 있으며 원문건명은 다음과 같다. ① 第一号 三十二年十二月十二日密受雑三五九 機密送二九九号「釜山練兵場新設ニ関スル釜山領事ノ稟申」 ② 第二号 密受二九四号 密発一三〇号「釜山居留地西部ニ於ケル地所三千坪余ヲ買収シテ練兵場用地トスルノ件」 ③ 第三号 三十四年十月二日 密受三五六号 密発六号「練兵場用地買収金トシテ二千五百円ヲ仕払命令書トシテ外務省ヘ送付ノ件」 ④ 第四号 三十五年一月二十一日 密受四七号 機密送三〇号「釜山駐劄隊練兵場用地買収ニ尽力シタル迫間房太郎ヘ三百円報酬贈与ノ件」三十五年 二月十三日 ⑤ 第五号 密受六一号 密発二三号「練兵場買収実費ノ残金九十四円六十匁ヘ差繼キ二百五円四十」 ⑥ 第六号 密受九八号 機密送41号「練兵場買収資金ニ対スル迫間房太郎の受領」三十五年三月二七日 ⑦ 第七号 密受一六号機密送42号「釜山駐劄隊將軍ヲシテ練兵場ノ用地ヲ製セシムル件」

이 문서를 통해 1899년 12월 육군성이 부산연병장을 만들기 위해 거류지 서부 토지를 하자마(迫間)가 사도록 하고, 매수자금은 3년뒤에 지불하였으며, 하자마(迫間)에게 보수를 지불하고 있다는 사실을 알 수 있다.

이처럼 육군성이 하자마(迫間)에게 군사기밀에 해당되는 일을 시켰으니, 나중에 그가 세금탈루나 토지관리문제로 구설수에 올랐을 때도 여전히 그를 어떻게 제거할 수 없었다. 1900년 8월 10일 재마산 사카다(坂田) 영사가 경성에 있는 하야시 곤스케(林權助)에게 보낸 [마산포 매수지 영리문제에 관한 건](문서번호 機密 半公信)은 그 고뇌를 대변해 주고 있다.³⁸⁾

이외에도 1899년 11月9日, 기밀 제14호, 마산분관 주임 영사 관보 나카무라 다카시(中村 巍)가 특명전권공사 하야시 곤스케(林權助)에게 보낸 문서를 보면, 부산 절영도의 해군탄고 매수지 7995평215, 동년 8월 현재, 초량에 있는 토지 606평71을 304엔16전으로 매수³⁹⁾했다는 것을 알 수 있다. 그리고 1902년에는 부산 주자대 연병장 용지 매수에 진력했다하여 하자마(迫間)에게 보수를 지급한다. ⁴⁰⁾ 1903년 2월 4일에는 하자마(迫間)가 보고한 것을 토대로, 재마산 영사 시데하라 기쥬로(幣原喜重郎)가 외무대신 고무라 주다로(小村 壽太郎)에게 부민동 밭 5경 전답 2경 합 7경 95두락 1844평96을 매수하였다고 보고하고 있다.

38) 명의를 변경하기 전, 하자마는 일본정부의 토지를 관리하고 있었고, 실로 광대한 면적에서 나오는 임대료가 500엔이라고 말해 당시 사카다 마산영사는 그를 신뢰하지 않았다. 그래서 관리인을 두명을 두어야 한다는 의견을 제시한다(국사편찬위원회 번역본 참조)

39) 1900년 8월 10일 在馬山 坂田 領事가 경성에 있는 林權助에게 보낸 [마산포 매수지 영리문제에 관한 건](문서번호 機密半公信), 62.

40) 1902년 부산주자대 연병장 용지 매수에 진력한 迫間房太郎의 보수 증여에 관한 건으로서, 외무대신 소네(曾禰荒助)로부터 제안받아 육군대신 오야마 (大山巖)가 보수 증여를 결정.

이처럼 일본의 육군성과 참모본부는 러시아의 부산포 절영도 점령정책을 토지 잠매정책으로 대응한다. 또한 1899년 절영도, 부민동, 초량 등에 부산연병장을 만들기 위한 목적으로, 하자마(迫間)에게 보수를 주고 사들인다. 이것은 일본이 러시아에 대응한다는 명목으로 독립국가인 한국을 속이고 진해만에 요새를 구축하기 위해 외국인 토지 구매 금지의 국제법도 위반하고 있는 것이다.

2. 마산포 군용지 잠매를 위한 결재구조

마산포에서 하자마(迫間)는 울구미의 토지를 잠매하여 러시아의 해군근거지 설치를 방해한다. 그런데, 마산포에서 이루어진 토지잠매는 실로 다양하였고 방대하였다. 그러면 이 토지 잠매를 추진한 주체는 누구인가. 다음에 제시하는 공문서는 이 정책을 추진한 당시의 기록으로서, 육군성과 참모본부가 마산포에서 군용지를 확보하기 위해서, 하자마라는 五百井상점 지배인을 대리로 하거나 심지어 한국 농상공부 대신 민영기의 힘을 빌어 그 대리인 한국인 명의로 토지를 잠매하였다는 것을 알 수 있다.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먼저 당시 육군성에서 작성한 기록은 [육군성 대일기류] 문서군에서 [육군성 잡철]에 연도순으로 편철되어 있다. 예를 들면, 1900년도 「한국마산지소 제2의 편책 기밀」편에 있는 「러시아 군함이 월영대 하자마(迫間) 매수지의 일부를 포함하여 러시아 기선회사 지계의 석표를 건설하는 것에 대해 마산분관 주임으로부터 보고받은 건」이 있다.⁴¹⁾ 이 문서는 1899년 12월 8일, 밀수

41) 陸軍省, 1900年, 「露国軍艦が月影台迫間買収地の一部を包括して露国汽船会社地界の石標を建設したる義に馬山分館主任より報告の件」, 陸軍省大日記類『明治

(密受) 제422호로 육군차관으로부터 참모장 본부 차장에게 보낸 것이다.⁴²⁾ 외무대신 아오키로부터 육군대신 가즈라에게 보낸 내용을 토대로 작성하였다.⁴³⁾ 그 내용은 러시아국 군함이 월영대 하자마(迫間) 매수지의 일부를 포함하여 러시아국 기선회사 지계의 석표를 건설한 것을 마산분관 주임으로부터 보고 받은 내용이다.

이 공문서에 함께 편철되어 있는 내용은, 1899년(明治32年) 11월 9日, 기밀 제14호, 마산분관 주임 영사관보 나카무라 다카시(中村 麿)가 특명전권공사 하야시 곤스케(林 權助)에게 보낸 것이다. 그 내용은 부산 절영도의 해군탄고 매수지 약도, 초량 토지 매수, 월영대 약도에 러시아, 하자마(迫間), 이영군의 종자(從者) 뒤흘씨가 매수한 토지를 각각 표시해 둔 자료가 첨부되어 있다.⁴⁴⁾ 이 문서를 보면, 러시아국의 동향과 부산과 마산의 토지 매집에 대하여, 재한 영사관 마산분관 주임→일본 외무성 외무대신→육군성 육군차관→참모본부 참모장 본부차장순으로 보고되었다는 것을 알 수 있다.

이러한 보고를 접한 일본 육군성과 참모본부는 잘 알려진 마산포 사건의 울구미 이외에서도 광대한 지역의 토지를 잠매한다. 하자마(迫間)는 1900년 9월 12일 한국 마산포 각국거류지 부근 자복리(滋福里), 월영리(月影里), 신월리(新月里), 완월리(阮月里), 정산리(正山里), 서성리(西城里) 등의 토지를 28198엔50전에 매도한다. 그리고 명의 전환에 대해 재마산영사 일본 외무성 육군성

33年分 韓国馬山地所 第2の編冊 機密』에 편철되어 있다.

42) 明治32年12月8日, 密受第四二二號 陸軍次官ヨリ參謀長本部次長へ内牒按 秘親展(次官)48~49쪽.

43) 明治32年12月4日, 機密第295号(受取: 機密第422号)秘 (外務大臣 青木周藏 → 陸軍大臣 桂太郎) 50쪽.

44) 「위의 문서」 64~65쪽.

참모본부까지 보고되지만, 1900년 12월 현재 참모본부의 판단에 의해 명의 전환을 보류하게 된다.⁴⁵⁾

더욱이 참모본부와 육군은 군용지를 매수하기 위해서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았다. 일본 육군은 한국 농상공부 대신인 민영기와 상의(商議)하여 이영균의 종자(從者) 오씨의 명의를 빌리거나, 하자마를 대신해서 한국인 명의를 빌어 토지를 매수하도록 하였다. 이 내용은 『메이지(明治) 33년도 한국마산지소 제2의 편책 기밀』에 편철되어 있다.⁴⁶⁾

그 내용은 하야시(林權助) 재한(在韓) 특명전권공사가 한국 농상공부 대신 민영기(閔泳綺)와 상의(商議)한 결과, 이영균(李泳均)을 마산포에 파견하고 이에 토지구입 자금으로서 일금 2만엔을 교부하여 착수한다는 것이다. 또한 하자마(迫間)를 대신해서 한국인이 토지를 매수하도록 하는 내용도 첨부되어 있다. 이 내용이 보고된 루트는 하자마 후사타로(迫間房太郎) → 부산영사(釜山領事) → 특명전권공사 하야시 곤스케(特命全權公使 林權助) → 외무대신 아오키 주조(外務大臣 青木周藏) → 육군대신 가스라 타로(陸軍大臣 桂太郎)이다.

45) 參謀本部-雜-M33-4-109(防衛省防衛研究所 소장) ①1900년 9월 12일[매상증서] 迫間房太郎→일본영사坂田 ②1900년 12월 11일 [韓國馬山浦に於ける買収地所有 名義轉換 の件(機密送 제90 호)] 제마산영사 坂田 →외무대신加藤高明 ③ 1900년 12월 24일[韓國馬山浦に於ける買収地 所有名義轉換の件], 機密送 제327호 密受제473호, 외무대신加藤高明→육군대신兒玉 ④1900년 12월 25일 [韓國馬山浦に於ける買収地所有名義轉換の件], 육군성발송 密發第233号, 참모본부 參秘第264号第22(12월 26일)육군대신兒玉→참모총장大山巖(원문에는 역순 편철).

46) 陸軍省大日記, 『明治33年分 韓國馬山地所 第2の編冊 機密』「林全權公使韓國農商工省大臣と商議の結果李泳均なるものを馬山浦に派遣して買収せしめたる地所の義に付林公使具報の件」明治33年2月23日～明治33年3月10日, 陸軍省-雜-M33-18-96 (防衛省防衛研究所 소장).

한편, 이 공문서에는 한국의 농상공부 대신 민영기가 외무대신 아오키 류조(青木周藏)에게 보낸 문서가 별도로 첨부되어 있다. 이 문서를 바탕으로, 외무대신은 문서를 작성하여 육군대신에게 보냈다. 한국의 고관대작인 민영기는 러시아와 맺은 협정을 위반하면서까지⁴⁷⁾ 일본 육군의 군용지 매수에 밀접하게 관련되어 있다는 것을 알 수 있다.

그러므로 일본 육군은 하자마를 대신하여 한국인이 토지를 매수하도록 하고, 한국의 고관대작 민영기에게 2만엔을 주고 토지를 사도록 하여, 이영균의 종자 오씨의 명의를 빌려 군용지를 매수하였다.

3. 러일의 토지분쟁지에 대한 일본정부의 결재구조와 명의변경

다음으로 마산포 사건 즉 월영동, 자복동, 울구미에서의 토지 분쟁지역에 대한 처리를 일본 정부는 어떻게 했는지. 그리고 이 후 명의 차용을 통해 잠매로 사들인 토지를 언제 명의 변경하는지 살펴보자. 울구미 사건에 관한 기록은 육군성 대일기류 참모본부 잡철(비) 『明治33년 비밀일기 참비호(參秘號)』에 편철되어 있다.⁴⁸⁾ 다음은 편철되어 있는 년월일, 건명, 수발신자 등이다.

- ①9월12일 「선명서(宣明書)」迫間房太郎→在馬山領事 坂田重次郎
- ②12월3일 「한국울구미에서 노국과 교환한 우리소유지(我所有地)에 대한 명의인 선명서등 반각」(陸軍省 密受468号, 外務大臣加

47) 1885년 한국은 거류지에 외국인은 토지를 구입할 수 없다고 정했으며, 1900년 3월 3일 러시아와 한국은 거제도와 그 일대의 토지를 타국에 양도하지 못하도록 협정을 맺었다. 이 시기 조약 내용에 대해서는 국회도서관 입법조사국, 1964『구한말 조약회찬 (상, 중, 하)』참조.

48) 參謀本部-雜-M33-4-109(防衛省防衛研究所 소장) 陸軍省大日記「陸軍省大日記類>參謀本部關係>參謀本部 雜參謀本部 雜(秘)>明治33年 秘密日記參秘號.

藤高明→陸軍大臣桂太郎)

③12월11일 「마산포거류지 부근 명의인 가용」 機密本第91号, (在馬山領事 坂田 重次郎→外務大臣 加藤高明), 마산영사는 민영기,⁴⁹⁾하자마(迫間)가 사들인 토지 명의인으로부터 정부 명의로 변경하기 좋은 때라고 제의

④12월24일 「한국 울구미에서 러시아와 교환한 육군소유지에 대한 명의인 선명서 및 반각」

⑤12월28일 「한국 울구미에서 러시아와 교환한 우리소유지에 대한 명의인 선명서 및반각」 육군성밀발(密發)230호 (陸軍大臣 兒玉源太郎→參謀總長 大山巖)

⑥12월28일 「총장으로부터 해군대신에 답변」(密受 230號) 참모본부 참비(參秘) 제264호 제24 마산 월영동 명의변경 유보 결정(참모총장→해군대신)

위의 자료를 보면, 가장 먼저 9월 12일 하자마(迫間)는 선명서를 재마산영사에게 제출. 재마산영사는 12월 11일, 외무대신에게 하자마(迫間)와 민영기를 통해 구매한 명의의 토지를 모두 정부가 변경할 수 있는 좋은 기회라고 제의한다.⁵⁰⁾ 12월 3일, 외무대신은 육군대신에게, 12월 24일 육군대신이 참모총장에게 보고하고, 결론적으로 참모본부에서 12월 28일에 명의 변경 결정을 유보한다. 위의 자료를 통해 마산포 토지 잠매는 참모총장, 해군성, 육군성, 외무성이 모두 관련되어 있으며, 명의변경 유보로 결정이 내려졌지만 최종결정은 참모총장이 한다는 것을 알 수 있다.

49) 원문에는 민영완으로 쓰여 있으나, 농상공부대신 민영기의 오자이기 때문에 고쳐썼다.

50) 하자마가 재마산 영사 사카다에게 제출한 선명서에는 1901년 3월 러일의 「일촉즉발의 위기」를 4개월 지난 시점이다. 1900년 9월 12일 현재 울구미 토지 매수 상황은 수전 24위 7두락 지계 7매, 전 4작 오두수 지계수 3매로 되어 있다 (09월12일「선명서(宣明書)」迫間房太郎→在馬山領事 坂田重次郎).

이 명의 변경건은 1901년 1월 1일, 1월 9일, 1월 14일 외무대신, 육군대신과 참모총장이 검토하였으나 반각되고, 결국 7월18일에 가서야 참모총장으로부터 육군대신에게 러시아와 교환한 월영동 소유지 명의를 변경하는 것을 승인한다.⁵¹⁾

이상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일본 육군과 참모본부는 1898년부터 부산의 절영도, 부민동, 초량에 군용지를 잠매하였고, 1899년 4월 러시아 군함이 마산포 연안에 들어와 토지를 측량하고 표목을 세우자마자, 바로 마산의 자복리, 월영리, 신월리, 완월리, 정산리, 서성리 등의 토지를 군사연병장으로 쓰기 위해서 잠매한다. 이처럼 1890년대와 1900년대 초에 전개된 마산포와 부산포의 토지 잠매는 일본 육군성과 참모본부의 지휘하에 추진되었다. 그 방법은 하자마(迫間)라는 상인과 농상공부 대신 민영기에게 토지대금을 주고 한국인 명의로 구매하는 방법을 취하였고, 실제로 토지를 구매하기 위해 움직인 사람은 하자마(迫間)의 대리인 일본인 弘淸三과 이영균의 종자(從者)오씨, 한국인들이었다. 1901년 7월 18일에 참모총장으로부터 육군대신에게 러시아와 교환한 월영동의 소유지를 명의변경하는 것이 승인된다.

따라서 일본 참모본부와 육군성은 부산과 마산에서 명의를 차용하여 군용지를 확보하였다. 이것은 1883년 한영수호통상조약에

51) 參謀本部-雜-M34-1-117(所藏館：防衛省防衛研究所) 陸軍省大日記「陸軍省大日記類」>參謀本部關係>參謀本部雜>參謀本部雜(秘)>明治34年秘密日記參秘号>「韓國粟九味に於ける露國と交換殘の我所有地に對する名義人よりの宣明書等及返却」①1月1日陸軍省送達 密發第3 參謀本部 參秘第8号3 陸軍省 兒玉源太郎→參謀本部 大山巖 ②1月 9日 「韓國粟九味に於ける露國と交換濟の我所有地に對する名義人宣明書等及返却」機密送第2号(寫し)(粟九味畚明細書)外務大臣加藤高明→陸軍大臣兒玉源太郎 ③1月14日「韓國粟九味の我買収地に名義人より徴したる宣明書に添付せる土地明細書訂正書外務省より回付の件」(陸軍省受領 密受第468号의 3)陸軍大臣→參謀總長

서 조계 밖 10리까지 외국인의 토지를 허용하였으나, 잠매한 토지는 모두 그 조계 밖 경계를 벗어났기 때문에 국제법을 위반한 것이며, 1885년 대한제국이 외국인의 토지 거래 금지법을 발효하였으니 거기에도 위배되는 행위이다. 일본제국은 대한제국을 속여 군용지를 확보하였으며 국제법도 위반한 것이다.

4. 일본 육해군 군용지의 수익금 활용

일본 육군성과 참모본부는 잠매한 마산포의 토지에서 임대사업을 하여 대략 년 3000엔의 수익금을 챙겼다.⁵²⁾ 이 매수지 수익금으로 외무성은 마산포에서 각종 국가사업을 벌인다.⁵³⁾ 마산포 거류지 외의 참모본부 매수지 년세에 대한 건은 육군성에서 만든 내용을 기초로 결정되었고, 참모본부가 육군대신의 면담을 통해 이견이 없음을 통고하였다. 재마산영사, 특명전권공사, 외무성, 육군성, 참모본부의 결재 루트를 거쳤다는 것을 알 수 있다.

육군성이 작성한 기밀 제94호 기밀수 제3815호「매수지수익금으로부터 보조금 지출의 건」은 토지를 구입하여 그 수익금으로 거류지의 제 사업을 추진했다는 것을 알 수 있다. 중요한 것은 세가지로 압축된다. 첫째, 일본어 교육을 추진하였다. 그들은 의사소통이 필요하였고, 자신들의 목적을 위해 그 수단으로 활용하기 위하여 한국인에게 일본어를 가르치고 학교를 운영하였다.

둘째, 의사보조금이다. 거류지에는 의료병원이 없었기 때문에 거류민들은 전염병이나 일상적인 병이 생겼을 경우, 부산까지 가야

52) 「買収地収益金ヨリ教育費其他ノ補助金支給ノ件」機密本第九三號 機密受第三七八七號「馬山浦居留地外買収地管理ニ関スル件」(사본)337쪽. 종래의 소유명의인은 迫間房太郎으로서 (중략)…。 토지수입은 대략 3천엔으로 되어 있다. 明治33年 12月 12日 재마산 영사 坂田重次郎→외무대신 加藤高明 에게 보낸 보고서

53) 機密本第九三號 機密受第三七八七號「馬山浦居留地外買収地管理ニ関スル件」

하는 불편을 겪어야만 했기 때문에 마산포에는 초기에 일본인들이 거의 살지 않았다. 이러한 것을 조금이라도 해결하기 위해 의사보조금을 1개월 20엔씩 1년간 240엔을 지급하였다.

셋째, 일본거류민회 보조금으로서 1개월 15엔으로서 계 780엔을 지급하였다.

이렇듯, 일본 외무성에서는 육군성과 참모본부가 잠대한 마산포의 토지로부터 나온 수익금으로 거류지에 대한 국가사업을 추진하였다는 것을 알 수 있다. 일본정부로서는 한국을 속여 일석이조의 효과를 거둬들였다. 이 마산포 거류지의 매수지 년세 및 지권(地卷)의 처리에 대해서는 외무성에서 제안하고, 육군성에서 검토한 후, 참모총장이 확인하고 육군성이 하달하였다.⁵⁴⁾

다음으로 이렇게 확보한 토지를 바탕으로, 일본 참모본부는 진해만요새를 어떻게 건설하고, 그에 따라 마산 부산지역의 도시 인프라가 어떻게 구축되고 변형되어 갔는지에 대하여 검토해보자.

IV. 한말 일본 대본영의 진해만 요새 건설과 군사도시 인프라 구축

1. 일본 대본영의 연합함대 근거지 진해만요새의 점령

일본 대본영의 연합함대 근거지로서 진해만 요새의 점령

한반도 남부의 진해만에 일본 대본영의 연합함대 근거지 진해만 요새를 구축한 것은 러일전쟁을 준비하면서 부터이다. 1903년 9월 30일자 軍令海 제1호 「방비대조례」에 의해서 「진해만 송진

54) 外務省記録「外務省記録」> 5門 軍事> 1類 国防> 7項 軍港、要塞、根拠地> 「韓国各地二帝国土海軍要地買収關係雜件」 在馬山領事坂田重次郎→外務大臣加藤高明 (明治33年12月12日～明治35年11月24日).

포 방비대」를 설치하였다. 1904년 1월에 일본해군은 대러시아와의 전쟁에서 [작전방침]을 결정하였다. 여기서 주목되는 것은 한국에 대해서만은 러일전쟁은 완전히 국제법을 위반한 무경고의 군사적 침략으로서 개시된 계획이라는 점이다. 일본 육군도 해군도 선발징발대, 선발 호위대(병력 계 181명), 보병 5대대 산포 1중대(병력 계 2963명), 합계 3144명의 병력을 평북으로 변장시켜, 무기는 별도로 묶어서 일반 화물로 수송하고, 독립한 주권국가인 한국에 비밀리에 상륙시켜, 수도 한성을 점령하고자 계획을 세우고, 실행명령(군령) 및 구체적인 훈령까지 발령했다. 육군도 [彼我의 정황 여하에 관계없이] 우선 한국의 마산포를 점령했다.

이 한국점령 계획은 러시아와 국교를 단절한 후에도 변함없이 실행되었고, 육군은 2월 6일에 무장한 임시파견대를 사세보(佐世保)로부터 인천으로 향해 출항시켰다(『明治卅七八年戰役陸軍政史』2). 해군은 동년 2월 6일에 군함을 이끌고 진해만의 마산전신국을 점령해버렸다. 55)

요새 공사는 동년 8월, 유수(留守) 제5사단 제3 임시축성단이 담당하여, 마산에 상륙하여 요새구축 작업을 시작하였다. 그후 제3군(군사령관 乃木希典 중장) 의 제1회 여순 공격 실패에 따라 여순요새 공략용으로 28류의 사용을 결정했다. 이 때문에 축성단은 진해만요새에 비치할 28류 전용(轉用)의 명령을 받았기 때문에 공사가 훨씬 늦어졌다.⁵⁶⁾ 동년 11월 27일에 진해만요새포병대대가 설치되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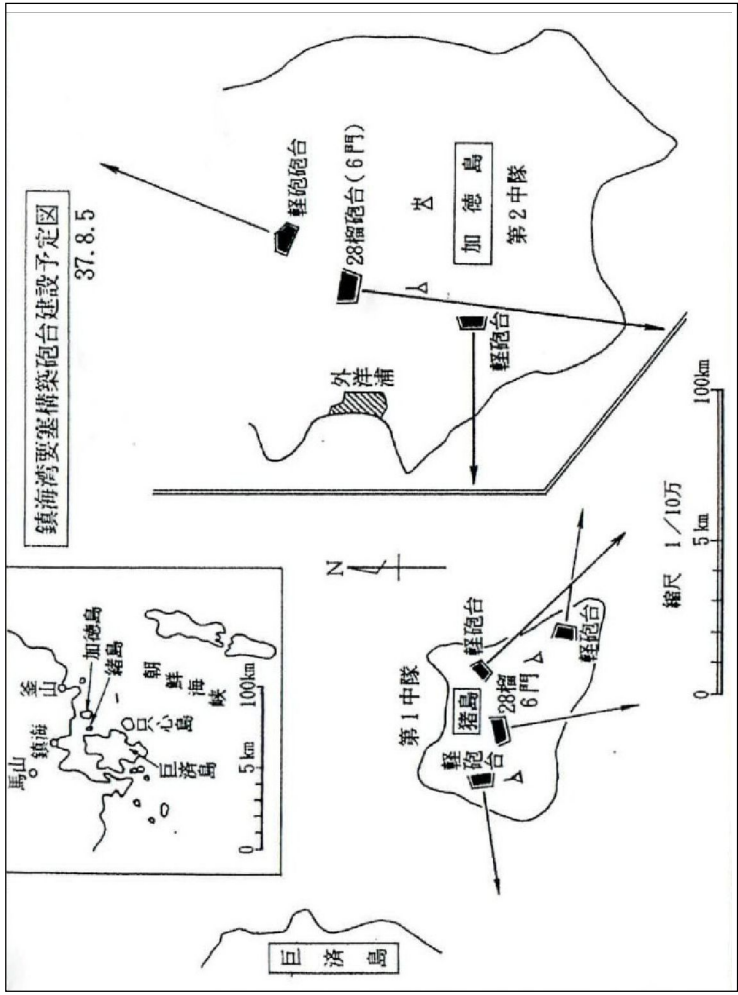
[그림-1]에서 보는 바와 같이, 진해만 요새지대는 부산, 진해,

55) 大江志乃夫, 2001, 『앞의 책』386쪽 : 大江志乃夫, 1985, 『日本の參謀本部』 中央公論社.

56) 중포대 28류 사용은 일본 대본영 회의에서 진해만, 대련만, 쓰시마만 3개소에 비치하도록 결정. 1904년 8월10일까지 철거하여 9월 10일까지 각지에 도착하도록 지시하였다. (編輯委員會, 1999, 『앞의 책』70쪽).

마산, 가덕도, 지심도, 저도, 거제도 일대의 육지와 섬에 건설된다. 그리고 진해만 부산 쪽의 가덕도(加德島)에 제2중대 28류 포대 6문, 경포대2문 설치 마산 쪽의 저도(猪島)에 28류 6문 경포대 3대 설치 되었다.

<그림-1> 러일전쟁기 진해만 요새 구축지 및 포대 건설지 (1904. 8월 현재)



출전; 編輯委員會, 1999, 『朝鮮所在重砲兵聯隊史』 70쪽

일본 대본영이 대한제국에 요새를 축조하게 된 것은 공식적으로 1905년 4월 26일이라고 하지만, 이미 1899년부터 마산일대 토지를 잠매하여 일본정부로 명의변경까지 하였고, 1904년 2월에는 대본영 육해군이 마산포를 점령한다. 동년 8월 부터 진해만 요새를 건설하기 시작하였다. 대본영은 연합함대의 근거지로 진해만을 탈취하여 육군이 소관하는 진해만요새사령부와 진해만요새중포병 대대를 설치하고, 해군이 소관하는 진해요항부를 설치하였다.⁵⁷⁾ 동 8월에는 결국 한국과 [한일의정서]를 체결하고 이른바 [보호국] 체제로 들어갔으며, 일본군은 거제도 외양포의 한국군 무기고를 탈취하였다.⁵⁸⁾

메이지 덴노(明治天皇)는 1905년 2월 6일 러시아와 국교를 단절하고 전쟁을 선포하고 한국주차군을 신설하였다. 일본군 대본영은 진해만 요새 이외에도 동 8월에 의주, 진남포 해안, 송전만(원산)에 요새를 두고, 육군 요새포병대를 배치하였다.⁵⁹⁾ 이와 같은 진해만 요새포병대의 설치 및 잔류에 대한 결정과 운용은 일본 본토의 요새사령부 조례와 요새지대법에 의한 것이다.⁶⁰⁾

[그림-2]는 가덕도 외양포의 일본군사령부 발상지의 현재모습

57) 編輯委員會, 1999, 『앞의 책』 68~70쪽.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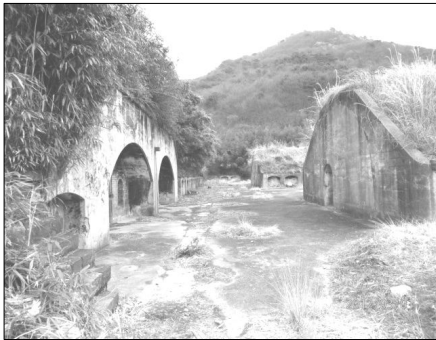
58) 『왕원잡첩5』, 보고서7호(유장근·허정도·조호연, 2003「대한민국시기 마산포 지역의 러시아조차지 성립과정과 각국공동조계 지역의 도시화」『인문논총 제16집』82쪽 재인용)

59) 編輯委員會, 1999, 『앞의 책』 27쪽.

60) 일본정부는 청일전쟁기간인 1895년 3월 30일자 칙령 제39호로 요새사령부조례를 제정하여, 요새의 대소 크기에 따라 1~3등 요새로 구분했다. 다시 1899년 7월 15일에는 법률 제105호로 요새지대법을 제정하였다. 요새지대는 국토방위를 위해 건설한 제반 방어 건축물 주위를 포괄하는 구역이고 제3구로 나누었다. 제1구역은 기선(基線, 방어 영조물의 각 돌출부를 연결하는 선)으로부터 250間 이내, 제2구역은 기선으로부터 750間 이내, 제3구역은 기선으로부터 2250間 이내로 일본 육군대신이 경계를 정해서 고시하였다(編輯委員會, 1999, 『앞의 책』 2쪽, 28쪽).

이다. 비석에 [司令部發祥地, 明治三十八年四月二十六日]라고 쓰여있다.

<그림-2> 일본군 진해만 요새사령부 발상지



출전; 2012년 2월 촬영.비석이 세워진 것은 1936년

진해만 요새를 설치한 당면 목적은, 당시 일본 육군이 대본영 연합함대의 근거지로 사용함으로써 육해군 합동으로 러시아의 발틱함대를 격파하여 전쟁의 승기를 잡기 위함이었다. 영흥만 요새는 북한에 있는 일본군을 배후에서 엄호하기 위해 만들어졌다.⁶¹⁾ 일본 대본영은 국제법을 위반하면서 만든 진해만 요새 덕분에 러일전쟁에서 승기를 잡았다. 진해만요새는 일본 해군의 연합함대가 러시아의 발틱 함대를 격파하는데 지대한 공헌을 하게 된다. 이로 인해 일본은 청일전쟁에 이어 러일전쟁까지 승리함으로써, 동아시아에서 패권을 거머쥐게 되었다. 1905년 12월, 한일 신협약에 의해 한국에는 일본의 이른바 보호정치가 실시되게 되었다.

61) 編輯委員會, 1999, 『앞의 책』 16~17쪽.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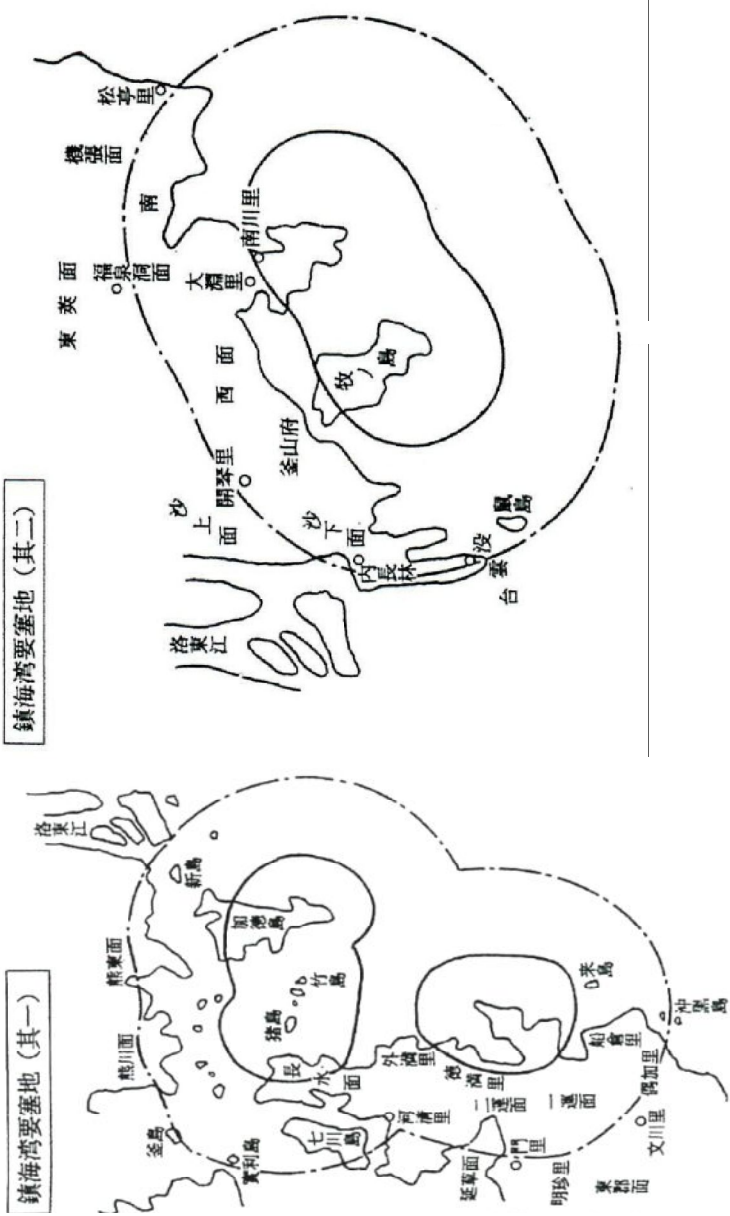
진해만 요새의 평시편제로의 전환

러일전쟁이 끝난 1906년 7월 31일, 일본정부는 한국주차군사령부조령(條令)을 발포하여 군제를 평시편성으로 전환시킨다. 진해만요새포병대대는 동년 4월 1일 포병대로 되었고, 병력이 3분의 1로 축소되어 한국주차군사령관예하로 배속되었다. 1908년에는 육군의 요새사령부와 포병대가 가덕도에서 마산의 월영리로 이전하게 된다. 1900년 초에 마산포에서 잠대한 군용지로 이동한 것이다.

한국 병합 후에 진해만요새지대는 제1진해만요새지대 마산요새, 제2진해만 요새지대 부산요새로 구성되었다. 러일전쟁기와 다른 점은 부산요새가 강화되어 가고 일본의 쓰시마해협(對馬海峽)과 본토를 연결하는 조선해협요새계(朝鮮海峽 要塞系)가 만들어진다는 점이다.

[그림-3]에서 보는 바와 같이, 당시 진해만 요새부대는 제1지대가 마산, 진해, 거제도일대이며 중점지역이 가덕도와 저도, 거제도의 장승포지역 등이다. 제2지대가 부산일대로서, 중점지역이 마키노시마(牧ノ島, 절영도), 몰운대, 감만리 등이다. 이 지구에는 육군 중포병부대가 배치되었다. 진해만중포병 연대는 위술지명으로 바뀌어 마산중포병연대로 명칭이 바뀌었고, 제1지대가 마산요새로 명칭도 변경되었다. 요새사령부는 조선군사령관의 직예로 편제되었으며, 진해만요새는 진해만요항을 수비하고, 영흥만요새는 영흥만 정박지를 수비하게 되었다.

〈그림-3〉 진해만요새지대(제1지대, 제2지대)



출전; 編輯委員會, 1999, 『朝鮮所在重砲兵聯隊史』 84, 85쪽.

2. 진해만 보조이주어촌의 건설

진해만 보조이주어촌의 건설과 목적

진해만 일대의 광대한 토지를 확보한 일본 육해군은, 진해만요새를 건설하기 위해 가장 먼저 한일간 항로와 인적자원이 필요하였다. 그리고 철도, 도로, 통신, 항만건설 등을 통해 일본과 대륙을 이을 수 있는 도시의 인프라가 필요하였다.

한국이 합병되기 이전에는 일본정부, 도도부현(都道府縣), 통감부가, 이후에는 일본정부, 도도부현, 조선총독부가 이러한 제 정책을 추진하였다. 이 정책을 수행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일본정부나 지방자치체로부터 보조금이 지불된다.

그러면 진해만 요새지대의 보조이주어촌의 실태와 그 이주사례에 대해 살펴보자.

한국에 일본어민들이 정착하기 쉬워진 것은, 러일전쟁 이후 1908년 10월 [한일어업협정]이 맺어지고, 11월에 [한국통어법]과 [어업법시행세칙]이 제정 발표되게 되면서부터이다.

그러나 진해만 요새지대에는 이전 1899년부터 통영군 요시노마치(吉野町), 육지도 동항동, 거제도 장승포, 마산포 울구미⁶²⁾ 등에 일본인의 보조이주어촌이 만들어진다. 이것은 일본정부의 특별대책으로서, 러시아군과 대결하기 위한 군용식량으로 어류통조림 확보가 긴급과제이었기 때문이다.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일본정부와 각 부현의 지사는 한국으로 어민이주를 계획하고 추진하였다.

이주어촌은 지방자치단체나 수산단체가 계획하여, 자금보조를 받거나 자력으로 이주하였지만, 다음에 열거하는 진해만 요새지대로 이주한 어촌은 모두 보조금을 받은 보조이주어촌이 되었다.

62) 울구미는 현재의 가포동(架浦洞).

<표-1> 진해만 요새지대의 보조이주어촌

도군면 동리	이주년도	종별	별칭	주요내용
남해군 삼동면 미륵리	1909	自→補	佐賀村	고등어에서 멸치로
사천군 삼천포면 선구리	1911	補	愛媛村、山口村	소멸
고성군 동해면 장사리	1898	補	広島村	권현업자의 근거지
통영군 통영면 길야정	1900	自→補	島根村、長崎村	굴지의 상업/수산도시
통영군 욕지도 동향동	1899	自→補	山口村	고등어 어업의 근거지
거제군 이운면 장승포	1904	自→補	入佐村	고등어 최대근거지
사등면 창호리	1910	自→補	城浦	멸치망어업
창원군 진해면 경화동	1912	補	鎭海漁港	소멸
창원군 마산포 율구미	1904	補	千葉村	소멸
동래군 사하면 다대포	1906	自→補	なし	소멸

布野修司·韓三建·朴重信·趙聖民, 2010, 『韓國近代都市景觀の形成』 京都大學 出版會』236쪽에서 재작성. 마산포 율구미 치바무라千葉村에 대해서는 石垣幸子, 2010, 『朝鮮の千葉村物語』에서 작성

기존 연구에서 한반도에 보조이주어촌을 만든 이유는 일본 정부의 대륙정책상, 자본주의적 경영상 필요에 따라 만들어졌다고 되어 있다. 또한 경영주체는 각 부현, 수산조합, 동양척식회사이다. 그 중 각 부현이 가장 적극적으로 조직하고 움직였다는 것이다. 그리고 이주어촌의 대부분이 한반도의 남해안에 입지하고, 촌락당 이주민수는 20-30호로 영세한 것이 특징이다.⁶³⁾

그런데 여기서 주목해야되는 것은 당시 보조이주어촌이 건설된 목적이다. 러일전쟁기를 전후하여 형성된 보조이주어촌은 거의 남해안에 만들어졌으며, 이것은 진해만요새지대 및 인근 군사들에게 제공할 어류 통조림을 만들거나 식료품을 제공할 목적으로 만들었다는 것을 의미한다. 마산 율구미의 치바무라(千葉村), 통

63) 布野修司·韓三建·朴重信·趙聖民, 2010, 『앞의 책』 231쪽.

영의 요시노마치(吉野町), 옥지도 동항동(東港町), 진해의 경화동(慶和洞), 거제도의 장승포(長承浦)등은 모두 진해만요새지대의 핵심적 위치에 자리잡고 있었다.

그 목적에 대하여 실제로 마산포 울구미의 치바무라를 사례로 살펴보면, 당시 치바무라에 간 사람들은 군인들의 식량을 조달하기 위한 것이라고 되어 있다. 마산포의 월영동에 만들어진 공장지대도 군인들의 식량을 조달하기 위한 통조림 공장이었다. 아울러 신선도가 생명인 어류를 일본까지 바로 운반하는 것은 어려웠으므로, 어획물을 처리할 근거지가 필요하였다고 할 수 있다.⁶⁴⁾

치바무라는 1905년 2월 울구미 남쪽 해변에 일본 치바현(千葉縣) 수산연합회의 어민 20명이 어업이민으로 정착하여 거주하면서 만들어졌다.⁶⁵⁾ 치바무라가 생기게 된 것은 치바현 지사인 이시하라(石原)가 자신의 정치라인인 내각수상 가즈라 타로의 정책을 돕기 위한 방책으로 추진된 것이다. 치바현은 원래 멸치잡이가 번성하여 생계를 유지하였으나 이 당시 멸치가 그다지 잡히지 않아 어민들의 생활고는 점차 어려워지게 되었다. 또한 정부측에서는 러시아군과 대결하기 위해 군용식량으로서 어류 통조림 확보가 긴급과제이었다.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정부와 치바현 지사는 마산 울구미로 주민을 이주할 것을 계획하고 추진하였다.

하지만 치바무라가 만들어진 울구미는 러시아의 해군기지가 만들어지던 전쟁의 화약고로서, 여차할 경우 주민들의 생명이 위험한 곳이었다. 정부가 그러한 사정을 이주민들에게 알리지 않음으로서 치바의 이주 어민들도 정부에 의해 결과적으로 희생당하였다고 전해진다.⁶⁶⁾

64) 한국 마산의 치바무라에 대한 자세한 것은 石垣幸子, 2010, 『朝鮮の千葉村物語 房総から渡った明治の漁民たち』 崙書房、ふるさと文庫 참조.

65) 마산상공회의소, 『마산상공회의소백년사』 129~130쪽.

3. 진해만요새지대의 군사도시 인프라 구축

그러면 대한제국 시기에 일본내각과 참모본부가 진해만에 요새를 구축하기 위하여, 일본내각의 어떠한 체제하에서 인프라를 구축하였는가.

거류지에서 일본의 법령 실시

부산과 마산은 건설 초기부터 일본의 한국점령을 위한 전진기지로써 만들어졌다. 특히 러시아와의 대결 과정에서 토지를 잠매하거나 군사기지를 만든 특성이 있다. 이 개발은 모두 일본의 법령에 따라 추진되었으며, 외교와 행정면에서는 영사관 설치와 함께 적극적으로 활동하기 시작하였다.

일본정부가 부산에 영사관을 설치한 것은 1880년 2월이다. 관리관청을 영사관으로 바꾸고 영사가 주재하게 되었다. 마산에 영사관을 설치한 것은 1900년도이다. 이후 부산과 마산거류지는 일본의 법률 훈령에 준하는 사무를 시행하게 되었다.⁶⁷⁾

특히 마산에 영사관을 설치하게 된 것은 마산요새의 설치가 중요하게 되었기 때문이며, 러시아와의 국제적 위치관계를 고려하여 결정된 것이다. 1900년 4월 14일 외무대신 아오키(青木周藏)는 내각총리에게 한국 마산주재 사카다(坂田) 영사를 임명할 것을 상주하였고, 메이지 덴노(天皇)는 동 4월 19일 재가하였다. 이 조치를 취한 때는 러시아군과 일본군이 진해만의 토지 각축전을 둘러싸고 분쟁이 일어났을 때이다. 공식적인 설치 이유는 「마산포가 통상상 주요한 요항이고 동양의 현 정세를 볼 때 최진

66) 石垣幸子, 2010, 『앞의 책』 30~35쪽.

67) 明治33年4月17日, 韓国馬山駐屯領事坂田重次郎へ御委任狀御下付ノ件, 外務大臣青木周藏이 상주하고 內閣總理大臣 山縣有明가 日本天皇에게 재가를 요청함. 外甲19(明治33年4月16日 내각서기관 기안)

요지」이기 때문이라고 했다. 그런데 보다 직접적인 이유는 러시아 정부가 3월에 부영사를 주재시키는데, 자격 관계상 일본영사관은 그 하위에 서게 됨으로써 거류지의 경찰사무 기타 제반 사항을 러시아 영사가 맡게 됨으로써 일본에 불리하기 때문이었다.⁶⁸⁾

한일간 항로의 개설과 일본정부의 보조금 지원

한일간 항로개설은 일본정부의 체신부 소관이다. 1903년 3월 28일에, 체신대신은 오사카상선주식회사(大阪商船株式會社)에게 1년마다 보조금을 지원하는 정책을 취하여, 고베 또는 오사카를 출발하여 이즈하라(嚴原) 마산 목포 및 군산 등에 정기적으로 기항 하도록 명령하였다. 다음은 일본 체신대신 요시가와 아끼마사(芳川顯正)가 총리대신 가즈라 타로(桂太郎)에게 보고한 내용이다.⁶⁹⁾

1903년 4월 1일부터 1904년 3월 31일까지 1개년간 고베 또는 오사카 출발의 선박에 대해 다음과 같이 기항을 명령하고, 1개월마다 종료하는 기항수에 따른 비율로 보조금을 지급하였다. ①쓰시마(對馬)의 이즈하라(嚴原) 매월 2회 이상 32회, 768원 ②마산 3개월마다 4회 이상 16회, 2400원, ③목포 매월 4회 48회, 2400원 ④군산 3개월마다 4회 이상 16회, 1600원. 기항의무를 이행하지 못할 경우, 1회당 백원 이하의 위약금을 징수하도록 하여, 한국과의 항로 개설을 의무화하고 있다. 1904년도부터는 각 지역마다 대부분의 기항 회수가 월 4회에서 월 2회로 줄어든다.⁷⁰⁾

68) 明治35年11月4日「韓国馬山駐屯領事へ三浦彌五郎御委任状御下付ノ件」(外務大臣 小村壽太郎→ 内閣總理大臣 桂太郎) .

69) 明治36年3月28日, 内閣, 管第29号, 「大阪商船株式會社へ寄港補助命令書 下付ノ件」(逋信大臣 芳川顯正→ 總理大臣 桂太郎 報告).

70) 관제1504호 明治37年10月3日 체신대신 大浦兼武 내각총리대신 桂太郎 「大阪商船株式會社へ下付ノ件」메이지33년 7월 17일의 건을 개정. 기항 회수 감소. 고베 또는 오사카 발 이즈하라(嚴原), 마산, 목포가 매월2회 총 12회로, 군산

체신성은 러일전쟁을 전후한 시기이기 때문에, 고베, 오사카에서 출발하는 선박에 대해서, 매월 4회 이상 운항하도록 명령하였다. 이 항로가 개설됨에 따라, 일본의 오사카(大阪), 고베(神戸), 이즈하라(嚴原), 한국의 마산, 목포, 군산이 연결되었다. 이 당시는 일본 정부의 보조금을 받고 오사카(大阪) 상선이 동원되었다.

진해만 요새지대의 철도 건설

진해만 요새지대의 철도건설에서 가장 중요한 루트는 제1진해만요새지대인 마산과 제2진해만요새지대인 부산요새를 연결하기 위한 것이다. 따라서 마산선(마산-삼랑진), 진해선(창원-진해) 71) 등이 설치되었다.

마산과 삼랑진 사이의 철도는 1902년 6월 김석규, 박기중, 이용복, 유기남, 유지연이 발기인이 되어 삼랑진과 마산을 연결하는 삼마철도부설을 계획하고 그 계획을 영친왕궁에 부속시켜 영남지선철도회사를 설립하였다. 그러나 이 회사는 일본의 완전한 금융지배를 받는 회사였기 때문에 결국 부설권은 일본의 경부철도회사에 매도되고 말았다.⁷²⁾

마산과 삼랑진선은 마산에 있는 진해만요새를 조선종관철도의 일부인 경부선과(경성-부산) 연결시키기 위해 육군이 군용으로 건설하였다.⁷³⁾ 역사(驛舍)는 마산, 창원, 진영, 삼랑진에 설치하였

이 매월1회 총12회로 감소. 기항보조금도 각각 288원, 1800원, 600원, 600원으로 감소. 그럼에도 마산의 보조금은 훨씬 많이 지원되는 것이 주목된다.

71) 진해선(창원-진해)은 1911년부터 군용철도로 계획되어 실시된다(1921년 2월 23일 「軍港境域內鐵道敷設の件」).

72) 김동철, 2004, 「박기중 내달리지 못한 근대의 꿈」, 『시민을 위한 부산인물사(근현대편)』 부경역사연구소, 선인, 173쪽. 개항 후의 박기중의 철도업에 대해서는 다음을 참조(藤永 壯, 1991, 「開港後の「会社」設立問題をめぐって—朴琪宗と汽船業、鐵道業」(上)(下) 『朝鮮學報』140、141集、朝鮮學會).

73) 조선총독부, 『조선철도사』 1937년.

다. 러일전쟁 시기에 부산과 마산의 군인, 물자와 무기를 수송하기 위해 군사적 목적으로 사용되었고, 전쟁 종료 후 1905년 11월 1일에 민간인에게 개방되었다.⁷⁴⁾

민간인에게 개방된 이후 철도관리에 대한 일본정부의 대책은 다음과 같다. 1905년 11월 22일 일본천황은 한국을 관리하는 기관으로서, 통감부 및 이사청을 두는 건을 재가하고 이를 공포하였다.⁷⁵⁾ 그리고 한국 철도를 관리하기 위한 기관으로서, 통감부에 철도관리국을 두어 철도를 관리하도록 한다. 내각이 작성한 기록은 칙령140호「철도작업국관제중을 개정함」으로서『공문유취』제30편 明治39년 제5권 관직4 관제47⁶⁾에 편철되어 있다.

러일전쟁 이후 마산선(마산-삼랑진)은 일반에게 개방되었지만, 유사시 언제나 군용으로 전환하는 체제를 만들기 위해, 일본정부는 마산선을 직접 관리하는 대책을 마련하였다. 1906년 9월 1일 메이지 덴노(天皇)는 칙령 제 192호로, 마산선 및 경의선의 건설 및 개량에 관한 사무를 담당하기 위해 통감부 철도관리국에 임시철도 건설부를 두고 직원을 증원하도록 결재하였다.⁷⁷⁾ 사무관 전임 6인, 사무관보 전임7인, 기사 전임 30인(이 중 1인을 칙임), 통역관 전임 3인, 서기 전임 151인, 기수 전임 107인, 통역생 전임 6인 등이다. 임시철도 건설부에는 부장을 두고, 그에 따른 예산도 별도 관리되었다.⁷⁸⁾

경부선·경의선 철도 부설의 군사적 성격에 대해서는 정재정, 1999, 『일제침략과 한국철도』 서울대출판부, 坂本悠一 木村健二, 2007, 『앞의 책』 155~201쪽 참조.

74) 『마산항지』, 74쪽.

75) 明治38年11月22日 勅令 第240号 「韓国ニ統監府及理事庁ヲ置クノ件ヲ裁可シ玆ニ之ヲ公布セシム」『御署名原本』(睦仁裁可印)(国立公文書館 소장).

76) 관련 건은 다음과 같다. 칙령176 ①통감부 철도관리국관제 ②통감부 철도관리국 직원관 등 급여령 ③통감부 철도관리국 직원 특별임용령 ④통감부 철도관리국 직원관 등의 초서 및 추서에 관한 건을 정함.

77) 勅令 第192号, 「統監府鐵道管理局ニ臨時鐵道建設部ヲ置ク件」『御署名原本』(睦仁裁可印)(国立公文書館 소장).

한국 병합 이후에도 군용철도의 부설은 계속된다. 창원-진해간 군용철도는 1911년 3월 2일자 관방기밀 제97호의 2로 기안된 군항철도 장래계획에 따라 추진되었다.⁷⁹⁾

일본정부의 군용 통신선의 가설

1901년 6월에 한국정부가 부산-마산간 직통 전선을 가설하기 시작하였고, 7월 29일에 낙성식을 가지고 그날 바로 통신을 개시하였다. 이때 일본정부에서 마산부산간 군용전신선 가설 특허 요구를 하였으나, 한국정부는 그 예방수단으로서 직통 전선을 개통하여 감시할 수 있는 체제를 만들었다.⁸⁰⁾

그러나 일본 해군이 1904년 1월에 대러시아와의 전쟁에서 작전 방침을 결정하면서 일본정부의 결정에 따라 군용으로 변환된다. 이것은 다음을 통해 확인된다. 당시 일본 해군이 작성한 제1작전 계획 중 제5항에, ‘사세보(佐世保), 팔구포(八九浦)(한국 서남단) 간에 부설하는 해저 전신선으로부터 한국 남서 해면에서 활동하는 우리 함대와 통신연락을 유지한다’ 제6항에, ‘對州로부터 거제도를 거쳐 마산포로 통하는 전신선을 부설하고, 倭근거지 및 한국 일본과의 통신연락을 비밀리에 한다.’라고 되어 있다.

78) 明治39年8月13日, 통감 이토 히로부미(伊藤博文)가 내각총리대신 사이온지 긴모치(西園寺公望)에게 요청하여, 칙령227호, 「임시군용철도감부 소속의 직원을 통감부 철도관리국 직원으로 인계 임용할 경우에 봉급 지급에 관한 건」으로 제가되고 공포되었다(明治天皇 陸仁裁可).

79) 1921년2월23日, 「軍港境域內鐵道敷設の件」(鎮要 기밀 제44호의 3). 이 문건은 진해요항부 사령관 야마지 가즈요시(山路一善)가 해군차관 이데 겐지(井出謙治)에게 보낸 공문서로서, 일본 해군성 문서의 참고문서로 첨부되어 있는 것이다. 그 내용은 1921년도 진해-창원선 확장공사의 내용인데, 본문 중에 1911년 군용철도계획에 따른 것이라고 기재되어 있다.

80) 明治34年6月18日, 内閣(外乙95)「韓国政府ニ於テ架設ニ着手シタル釜山馬山間直通線客月二十九日ヲ以テ工事落成同日ヨリ直ニ通信開始ノ件」(外務大臣 曾禰荒助로부터 内閣總理大臣 桂太郎 보고).

이것을 볼 때, 일본해군은 러일전쟁에 돌입하기 위해 거제도를 거쳐 마산으로 통하는 전신선을 부설했다는 것을 알 수 있다. 그리고 해군은 동년 2월 6일에 군함을 이끌고 진해만의 마산전신국을 점령한다.⁸¹⁾ 러일전쟁 과정에서 진해만 일대의 통신선은 일본육해군이 장악하여 군용으로 바뀌어버렸다.

다음 [그림-4]는 진해만요새지대의 해저케이블선의 설치 모습이다. 해저 케이블은 이미 러일전쟁기 진해 남쪽에서 가덕도의 두문까지 설치되었는데, 다시 가덕도의 두문에서 저도(猪島)를 거쳐 통영의 하류(下柳)까지 연장 설치되었다.

<그림-4> 진해만요새지대의 일본 육해군 군용 해저케이블선



출전: 編輯委員會, 1999, 『朝鮮所在重砲兵聯隊史』86쪽

81) 大江志乃夫, 2001, 『世界史としての日露戦争』立風書房 386쪽.

이 해저케이블은 한일간을 통합 경비하는 조선요새 해협계가 설치된 후 더욱 연장되어 개발된 것이다. 육군은 1928년 5월(육밀제219호) 진해망요새 통신망의 신설공사 명령으로, 가덕도의 두문-저도-통영 하류까지 해저케이블 부설공사를 실시하여 1929년 3월 완성하게 되었다.

이렇듯, 러일전쟁기에는 철도, 도로, 전선 등은 모두 군용 시설로 쓰였다. 그러므로 전시기에는 철도에 들어가거나 전선을 절단하는 등의 행위는 모두 일본 군대규칙에 따라 사형시키거나 지역으로부터 방출시키는 등 극심하게 처벌되었다.⁸²⁾ 전선을 절단한 한국인 김중길을 진해만 경비대에서 20년간 경상도 밖으로 방축할 것을 요구하여, 충청북도 황간군으로 방축되었다. 당시 46세였던 김중길은 거제의 학산도에 거주하는 농민이었다.⁸³⁾ 이렇듯 군대의 규칙을 일반 조선인들에게 적용한 것은, 일본이 한국이라는 [이익선]을 지키기 위하여, 한국의 의병운동 혹은 독립운동을 말살시키려는 군부 특단의 조치이었다. 이러한 역할은 각지에 요새지대 보안대가 설치되어 담당하였다.

V. 결 론

본고는 20세기 초, 세계 열강의 동아시아 패권 경쟁 속에서,

82) 鄭肯植, 2002, 『앞의책』, 27쪽. 당시 철도규칙은 다음과 같다. ① 철도 위 보행자 및 손대는 자는 그 자리에서 체포하여 엄벌에 처하고 ② 군용철도와 전선을 파괴하는 자 또는 그 모의를 꾀하는 자는 사형에 처하며, ③ 범행자가 속한 군수와 촌리도 엄벌에 처함 『昌原報牒四』 光武 9年(1905) 2月 5日 감리보고 제8호(허정도, 2005, 『앞의책』 296쪽.

83) 유장근, 허정도, 조호연, 「대한민국시기 마산포 지역의 러시아조차지 성립과정과 각국공동조계 지역의 도시화」, 『인문논총』 제16집, 2003, 82~83쪽(원문은 『昌原報牒』 5, 보고서 2호, 광무10년 1월 3일).

일본 내각과 참모본부가 대한제국의 진해만 요새를 점령하는 과정에서, 그 핵심 축인 부산과 마산이 군사요새도시로 변형되어가는 모습을 밝히는 것이 목적이다. 특히 러일의 각축전 속에서, 일본 정부는 어떠한 논의·결재 구조 속에서 진해만요새지대의 두 축인 부산과 마산의 토지잠매를 추진하였는지, 또한 요새지대의 도시인프라를 어떻게 설치하였는지 그 특성에 대해 검토하였다.

주로 일본 대본영 참모본부와 육군성, 해군성, 외무성이 작성한 당시의 공문서 등을 분석한 결과는 다음과 같다. 1880년대부터 1903년까지 추진된 부산포와 마산포의 토지 잠매는, 일본 야마가타(山縣) 내각이 러시아로부터 한국이라는 이익선을 지키기 위해 사활을 걸고 추진한 전략적 방책이었다. 주무기관은 일본 대본영 참모본부와 육군성이었다. 「일본제국육군」은 진해만 일대 즉, 부산의 절영도, 부민동, 초량을 비롯하여, [마산포사건]으로 알려져있는 울구미(栗九味) 뿐만 아니라, 자복리(滋福里), 월영리(月影里), 신월리(新月里), 완월리(阮月里), 정산리(正山里), 서성리(西城里) 등에서 광대한 토지를 잠매한다. 이때, 일본 상인 하자마(迫間)를 대리로 한국인의 명의를 빌거나 한국 농상공부 대신 민영기 대리인 김영균의 종자(從者) 오씨의 명의를 빌어 잠매를 추진하고, 러시아와의 토지문제를 해결 한 이후에는 명의를 변경하였다. 이처럼 일본 참모본부와 육군성은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명의를 차용하여 군용지를 확보하였다. 이러한 일본제국의 토지잠매행위는 국제법 위반이다.

이 군용지는 일본 대본영 해군의 연합함대 근거지로 만들기 위함이었다. 러시아와의 일전을 준비하고 있던 일본 해군이 1904년 1월 러일전쟁의 [작전계획]을 수립하는데, 가장 먼저 추진한 것이 한국 진해만 점령이다. 일본 메이지 덴노(明治天皇)는 동년 2월 6일 러시아와 국교를 단절하고 전쟁을 선포한다. 같은 날,

육군은 무장한 임시파견대를 사세보로부터 인천항으로 출항시켰다. 동시에 총 3,144명의 병력을 평북으로 무장시켜, 무기는 별도로 일반 화물로 수송하고, 독립한 주권국가인 한국에 비밀리에 상륙시켜, 육군은 우선 한국의 마산포를 점령했다. 해군은 군함을 이끌고 진해만의 마산전신국을 점령하였다. 동년 4월부터는 진해만 거제도 외양포에 요새를 만들고, 동년 8월에는 한국의 무기고를 탈취하여 진해만요새 중포병대대를 배치한다.

이 진해만 요새는 일본 해군의 연합함대가 러시아의 발틱함대를 격파하는데 지대한 공헌을 하게 된다. 이로 인해 일본은 청일전쟁에 이어 러일전쟁까지 승리함으로써 대한제국을 이른바 [보호국]으로 만들어 점령하고 동아시아에서 패권을 거머쥐게 된다. 그리고 1905년 8월 정식으로 진해만요새사령부를 설치하였다. 육군소관 진해만요새사령부, 진해만중포병대대, 해군소관 진해요항부가 설치되었다.

일본 정부는 러시아와 전쟁을 준비하기 위하여 한국에 주차해 있는 군사들에게 제공할 군용식량을 만들기 위해, 진해만 요새 일대에 일본인 보조이주어촌과 군용 통조림공장을 건설하였다. 또한 부산 항로에 더해, 일본의 오사카(大阪), 고베(神戸), 이즈하라(嚴原)와 한국의 마산, 목포, 군산을 항해하는 한일간 항로를 개설하고 보조금을 지불한다. 그리고 진해만요새지대의 핵심도시인 마산과 창원, 진해, 부산(가덕도를 포함)을 잇는 군용의 철도(마산-삼랑진선), 도로(마산-진주선)등 인프라를 설치하고, 육상·해저 케이블 등 군용 통신망을 신설하거나 필요한 전신선을 탈취하였다.

따라서, 한말 울구미에서 발생한 「마산포사건」은 러시아 기선회사와 일본 상인의 토지소유분쟁이 아니라, 일본이 동아시아에서 패권을 잡기 위하여 특히 러시아에 승기를 잡기 위하여 사활

을 걸고 추진한 군용지 확보 전략이었다. 부산과 마산에서 잠대한 이 군용지에는 일본 대본영의 연합함대근거지로서 진해만 요새가 건설된다. 여기서 주목해야 하는 것은, 1904년 2월 6일 일본은 러시아와 선전포고를 하자마자, 가장 먼저 진해만 마산포를 위장하여 점령한다는 점이다. 이 행위는 한국에 대해서만은 국제법을 위반한 무경고의 군사적 침략이었다.

그러므로 한말에 추진된 한국의 부산과 마산의 도시개발은, 일본정부, 참모본부가 러시아와 각축을 벌이면서 진해만을 요새지대로 만들면서 추진된 것으로서, 군사적으로 변질되었다는 것을 알 수 있다.

러일전쟁 이후 진해만요새지대는 평시편제로 변경되어 제1 지대 마산요새, 제2지대 부산요새로 형성된다. 진해만 요새지대는, 러일전쟁, 중일전쟁, 태평양전쟁으로 이어지면서 일본의 상정 적국과 군사전략이 변화됨에 따라 요새의 중점지역도 변화되었고 도시개발도 부산요새를 중심으로 추진된다. 이에 대해서는 후고를 기약한다.

【참고문헌】

- 『陸軍省大日記』『參謀本部雜綴(秘)』『御署名原本』『日本外交文書』
『外務省韓國各地二帝國陸海軍要地買収關係雜件』
『旧韓國外交文書』『馬山港誌』『昌原雜牒』
- 山脇重雄, 1959, 「馬山浦事件」『東北大学文学部研究年報』第9, 10,
13上号
- 大山梓編, 1966, 「山縣有朋意見書」『原書房明治百年史叢書』
- 김용욱, 1967, 『한국조계에 관한 연구』 태화출판사
- 大山梓, 1968, 「日露戦争直前における日露關係の問題－馬山浦事

件」『明治時代軍事史』

- 金義煥, 1968, 「朝鮮을 둘러싼 近代露日關係研究－馬山浦事件과 港民의 抵抗을 중심으로」『亞細亞研究』 11권 3호, 고려대아세아문제연구소
- 金容旭, 1981, 「馬山浦滋福洞, 月影洞 및 栗九味の 土地事件－露国單獨租界를 중심으로」『法史學研究』 제6호』
- 손정목, 1982, 『한국개항기 도시변화과정연구』 일지사
- 大江志乃夫, 1985, 『日本の參謀本部』中央公論社
- 高秉雲, 1987, 『近代朝鮮租界史の研究』雄山閣
- 金용섭, 1988, 「고종조 왕실의 군전수도문제」『한국근대농업사연구(하)』 일조각
- 宮田節子編・解説, 1989, 『朝鮮軍概要史』不二出版
- 井口和起, 1998, 『日露戦争の時代』吉川弘文館
- 古野直也, 1990, 『朝鮮軍司令部：1904～1945』図書刊行会
- 藤永壮, 1991, 「開港後の「会社」設立問題をめぐって－朴瑛宗と汽船業, 鉄道業」(上)(下)『朝鮮學報』140, 141集, 朝鮮学会
- 최원규, 1995, 「1900년대 日帝의 土地權侵奪과 그 管理機構」『釜大史學』 第19輯
- 손정목, 1996, 『일제강점기 도시화과정연구』 일지사
- 編輯委員會, 1999, 『朝鮮所在重砲兵聯隊史』編輯委員會
- 최원규, 1999, 「19세기 후반 20세기초 경남지역 일본인지주의 형성과정과 투자사례」『韓國民族文化14』 부산대 한국민족문화연구소
- 井口和起, 2000, 『日本帝國主義の形成と東アジア』名著刊行会
- 大江志乃夫, 2001, 『世界史としての日露戦争』立風書房
- 유장근·허정도·조호연, 2003, 「대한제국시기 마산포 지역의 러시아조차지성립과정과 각국공동조계 지역의 도시화」『인문논총』 제16집

- 부경역사연구소, 2004, 『시민을 위한 부산인물사 (근현대편)』 선인
- 허정도, 2005, 『전통도시의 식민지적 근대화 일제강점기의 마산』 신서원
- 坂本悠一・木村健二, 2007, 『植民地都市釜山』 山川出版社
- 최덕규, 2008, 『제정러시아의 한반도정책 1891~1907』 경인문화사
- 和田春樹, 2009, 『日露戦争 起源と開戦(上)』 岩波書店
- 布野修司・韓三建・朴重信・趙聖民, 2010, 『韓国近代都市景観の形成』 京都大学出版会
- 石垣幸子, 2010, 『朝鮮の千葉村物語 房総から渡った明治の漁民たち』 崙書房
- 金慶南, 2011a, 「戰時体制期における近代都市釜山開發の植民地的性格」 『近代植民地釜山の都市形成 「日本帝国」における植民地と人の移動をめぐって』 経営經濟論集 第18卷1号, 九州国際大学
- 金慶南, 2011b, 「帝国と植民地における不均衡殘存記録の構造と植民地支配の特徴－朝鮮總督府の山林資源記録を中心に」 『アーカイブズ学研究』 第15号, 日本アーカイブズ学会

투 고	심 사	완 료
2011.12. 04	2011.12.10	2011.12.15

【국문초록】

본고는 20세기 초, 세계 열강의 동아시아 패권 경쟁 속에서, 일본내각과大本營이 진해만요새지대를 만들어가는 과정에서, 그 핵심 축인 마산과 부산이 군사요새도시로서 변형되어 가는 모습을 밝히는 것이 목적이다. 특히 러일전쟁이 발발하기 이전에 토지잠매를 둘러싼 러일의 각축전 속에서, 일본정부는 어떠한 논의・결재구조

속에서 진해만 부산과 마산의 토지잠매를 추진하였는지. 또한 요새 지대의 도시인프라를 어떻게 설치하였는지 그 특성에 대해 검토하였다.

주로 일본 대본영 참모본부와 육군성, 해군성, 외무성이 작성한 당시의 공문서 등을 분석한 결과는 다음과 같다. 1880년부터 1904년까지 추진된 부산포와 마산포의 토지 잠매는, 일본정부가 러시아로부터 한국이라는 이익선을 지키기 위해 사활을 걸고 추진한 전략적 방책이었다. 주무기관은 일본 대본영 참모본부와 육군성이었다. 일본 육군은 진해만 일대 즉, 부산의 절영도, 부민동, 초량과 [마산포사건]으로 알려져있는 울구미(栗九味) 뿐만 아니라, 자복리(滋福里), 월영리(月影里), 신월리(新月里), 완월리(阮月里), 정산리(正山里), 서성리(西城里) 등 광대한 토지를 잠매한다. 이때, 일본 상인 하자마 후사타로(迫間房太郎)의 명이나 한국 농상공부 대신 민영기와 상의하여 이영균의 종자 오씨의 명의를 빌려 토지의 잠매를 추진한다. 러시아와의 토지문제를 해결한 이후에는 명의를 변경하였다. 이처럼 일본 참모본부와 육군성은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명의를 차용하여 군용지를 확보하였다. 이러한 일본제국의 토지잠매행위는 국제법 위반이다.

이 군용지는 일본 대본영 해군의 연합함대 근거지로 만들기 위한 것이었다. 메이지덴노(明治天皇)는 1904년 2월, 러시아와 국교를 단절하면서 동시에 진해만에 군인을 변장시키고 무기를 일반화물로 보내는 수법으로 진해만에 육해군을 잠입시킨다. 일본 해군의 요청으로 일본육군은 1904년 8월 거제도 외양포에 진해만요새를 건설하기 시작하고, 이 기지에서 발틱함대를 격퇴하는데 커다란 공헌을 하게 되어 일본은 청일전쟁에 이어 러일전쟁에도 승리함으로써 동아시아의 패권을 거머쥐게 된다. 1905년 8월 정식으로 진해만요새 사령부가 설치되고, 육군소관 진해만요새사령부, 진해만중포병대대, 해군소관 진해요항부가 설치된다.

일본내각은 진해만 요새지대에 있는 군사들에게 제공할 군용식량을 만들기 위해, 일본인 보조이주어촌과 군용 통조림공장을 건설하였다. 또한 진해만요새지대의 핵심도시인 마산과 진해, 부산을 잇는 군용의 철도, 도로 등 인프라를 설치하고, 육상·해저 케이블 등 통신망을 정비하였다.

따라서, 한말 울구미에서 발생한 「마산포사건」은 러시아 기선회사와 일본 상인의 토지소유분쟁이 아니라, 일본이 동아시아에서 패권을 잡기 위하여 특히 러시아에 승기를 잡기 위하여 사활을 걸고 추진한 군용지 확보 전략이었다. 이 군용지에는 일본 대본영의 연합함대근거지로서 진해만 요새가 건설된다. 여기서 주목해야 하는 것은, 1904년 2월 6일 일본은 러시아와 선전포고를 하자마자, 가장 먼저 진해만 마산포를 위장하여 점령한다는 점이다. 이 행위는 한국에 대해서만은 국제법을 위반한 무경고의 군사적 침략이었다.

그러므로 한말에 추진된 한국의 부산과 마산의 도시개발은, 일본 정부, 참모본부가 러시아와 각축을 벌이면서 진해만을 요새지대로 만들면서 추진된 것으로서, 군사적으로 변질되었다는 것을 알 수 있다.

핵심주제어 : 진해만요새지대, 부산, 마산, 군용지, 토지잠매, 식민도시개발, 보조이주어촌, 도시인프라, 조선해협요새계, 국제법위반, 대본영 연합함대근거지

【Abstract】

韓末における日帝の鎮海湾要塞地帯建設と植民都市 開発の変形

金慶南 / 日本 法政大学 大学院

本稿は20世紀初頭、列強による東アジアでの覇権争いの中、日本が鎮海湾の要塞地帯を築いていく過程で、その中心であった馬山と釜山が軍事要塞都市として、開発の性格が変化していく様子を論じる。特に、日露戦争が勃発していく以前、階級鎮海湾要塞地帯の核心をなす馬山、釜山で土地潜買という手法を利用して軍事要塞基地を建設していく過程が、日本帝国政府内のどのような論議・決済構造で進められたのかを明らかにするのが本稿の目的である。

主に日本の大本営 参謀本部、陸軍省、海軍省、外務省が作成した当時の公文書などを分析した結果は、以下の通りである。1880年から1904年にかけて進められた釜山浦と馬山浦の土地潜買は、日本帝国政府がロシアから韓国という利益線を守るため、死活を賭けて進めた戦略的方策であった。主務機関は日本大本営 参謀本部と陸軍省であり、鎮海湾一帯、すなわち釜山の絶影島、富民洞、草梁、「馬山浦事件」で知られる栗九味だけでなく、滋福里、月影里、新月里、阮月里、正山里、西城里など、広大な土地を潜買した。この時、日本人の迫間房太郎や(韓国の農商工部大臣であった閔泳綺と商議して、韓国人の名義で潜買は進められた。イ・ヨンギョンの従者呉氏の名義) など このような日本の韓国での土地潜買行為は国際法違反である。

こうして買い占めた土地をもとに、日本大本営は、1904年2月、連合艦隊の根拠地として使うため、兵士を辯髪して、武器を一般貨物として送って、馬山を占領した。海軍の要請によって陸軍は1904年8月、巨済島の外洋浦に鎮海湾要塞の建設を始める。この基地は大韓海峡東側でバルチック艦隊を撃退する際に大きく

貢献した。しかし、この時、日本帝国陸海軍が韓国の鎮海湾基地に上陸したのは国際法違反の無警告の軍事的侵略である。1905年8月には、正式に鎮海湾要塞司令部が設置される。

日本の内閣は、鎮海湾要塞地帯にいる兵士に軍用食糧を提供するため、日本人の補助移住漁村と軍用の缶詰工場を建設した。また鎮海湾要塞地帯の核心都市である馬山と鎮海、釜山を結ぶ軍用鉄道、道路などのインフラを設置し、陸上・海底ケーブルなどの通信網を整備した。

よって、1900年の鎮海湾一帯の土地暗買政策は、ロシアの汽船会社と日本の商人の土地をめぐる争いではなく、日本帝国がロシア勢力の南下を抑えるために国家の死活を賭けて国際法を違反しながら進めた軍事戦略的なものであった。以後、鎮海湾要塞地帯が設置されていく中で日本の仮想敵国が変化するにしたがって馬山から釜山に要塞の中心が移動し、土地改良、鉄道、道路、通信網など都市インフラ開発も軍事政策に合わせて変化するのである。

主題語： 鎮海湾要塞地帯、釜山、馬山、軍用地潜買、植民都市開発、補助移住漁村、都市インフラ、朝鮮海峡要塞系、国際法違反、大本營 連合艦隊根拠地